기존 동관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목재건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마음이 밝으면
세상 또한 밝고
아름답다. 〈법구경〉

법회 안내

대각사 (02)765-0972
합장단법회 매주 월 오후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하늘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법회 매주 화 오후7시30분
금강법회 매월 1일(음)
인등법회 매월 15일(음)
관음재일 매월 18일(음)

법련사 (02)733-5322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선우가족법회 첫째 일 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도선사 포교당 (02)352-5405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미타재일 매월 보름(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광도사 (02)979-5183
장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경전읽기 매주 금 오전10시

대구 보리원 (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매월 마지막주 일

동해 삼락사 (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인천 무량사 (032)575-38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5시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전북불교회관 (065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부법회 매월 첫째 월 오후6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동국대 다시 태어난다

제 3캠퍼스·불교 종합 병원 등 설립 계획

재단·동문·불자 힘모아 "종립대 면모일신"

종립 동국대학이 '불국정토의 건설과 인간의 완성'이라는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발판다지기에 돌입했다.

개교 1백주년과 21세기를 앞두고 마련된 동국대의 장기적 발전계획이 송석구총장의 취임 이후 수립돼 명실상부한 교육도량의 면모 가꾸기 불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 20일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및 각 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제3캠퍼스 건립 △불교종합병원 설립 △교육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이 직접 발표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동국대는 수도권 일대 약 15만평의 부지에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고 불교종합병원을 2천년까지 건립, 교육과 사회사업의 단초를 마련케 된다.

동국대 최우선 사업으로 서울캠퍼스의 교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10개대학중 4개대학(이과·공과·생명자원과학·예술대학)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795-2번지 일대로 이전, 자연과학 및 영상산업 분야를 집중육성할 계획. 또 종합병원은 한방·양방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2천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교지확장, 불교종합병원 건립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1백주년기념본부를 확대 개편한 동국대는 '21세기 기획단'을 발족, 불교인·동문·학부모를 비롯 전불자를 상대로 획일한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송석구 총장

동국대는 이날 발표에서 교육시장 개방, 대학입학예정인원 감소, 대학자율화정책에 따른 교육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대한 교육개혁정책은 석좌 및 연구교수제 도입, 불교학 전공의 다양화, 한국불교 관련자술의 영역, 불교학 연구를 위한 특별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개교 9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대규모 '세계불교회의'도 개최한다.

송총장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강화를 위해 '더불어 사는 참인간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기치아래 교양학부에 불교학 관련 교양프로그램(자아와 명상)을 개설하는 한편 '산사의 수련'을 실시,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동국대는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의 혁신을 위해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학외활동·사회봉사·학교 기여도 등을 참작하는 교수 종합발전제를 도입, 발전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종립동국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양하게 발전방안을 제시한데 대한 공감의 폭은 이미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천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재원확충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동대는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영탑묘원과 휴양시설(실버타운)을 운영, 불자 평생교육도량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동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불사는 학교구성원과 동문·종단을 비롯한 범불교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중근 기자〉



이래도 됩니까 서울 평창동에서 일선사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마애불이 돌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손이 잘려나가고 코가 떼어지고 있다. 특히 얼굴부분은 예리한 정으로 쪼아낸 흔적이 있으며 발아래에는 사람의 대변이 그대로 묻어있어 흉칙하기 짝이 없다. 이같은 훼불은 최근 4개월동안에 이뤄진 것으로 주변 바위마다 붉은색 십자기도 자주 그려지고 있다. 한편 일선사 뒷편 보현봉 아래에는 불법 막사가 지어져 이교도의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어 등산객에게 혐오감마저 들게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사찰토지도 실명화해야

국회법사위 통과…7월1일 실시

종교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따라 본말사 명의의 토지는 총무원 명의로 신탁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국회법사위는 지난 17일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안'(부동산실명제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실명제법안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명화의 예외를 인정했다.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을 전면 금지할 경우 사찰을 비롯한 종교단체의 토지가 대부분 종중재산이면서도 대표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권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었다.

목어

"만일 이레 동안에 1천 사람의 머리를 베고 그 손가락 1천개를 잘라 목걸이를 만들면 발천왕이 감응하여 네가 죽은후에 범천에 태어나도록 할것이다"

5백명의 제자를 거느린 외도 바라문은 그의 제자 아힘사카(앙굴리말라·손가락을 엮은이)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주문을 외웠다. 재상의 아들로 용모단정하고 힘이 장사인 아힘사카는 스승에게 칼을 받아들고 거리로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죽였다. 9백93개의 손가락을 얻고 마지막 한개를 얻기위해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는 순간, 멀리서 부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그를 제도했다.

"너는 나쁜 스승에게 삿된 법을 배워서 네 마음이 번뇌으로 사람을 죽여 끝없는 죄를 짓는구나."

세계를 경악시킨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살인사건 형의 집행을 앞두고 있는 신흥종교집단 '옴 진리교'의 이야기는 현우경 부뇌지만품의 앙굴리말라를 연상케한다.

부처님은 2천6백여년전 잘못된 가르침을 교사(敎唆)한 외도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일러주셨다.

'옴'을 외우며 살세론을 내세운 '옴 진리교' 이와 비슷한 신흥종교집단은 우리나라에도 많아 수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다. 오대양사건, 영생교 사건, 93년의 휴거 사건등은 극명을 초월하여 사교의 공통성을 지닌다.

'절대자유·절대행복'을 내걸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하거나 온수를 봐주고 과거를 알아 맞히는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종교가 아니다. 즉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 이는 사이비다. 사교들이 판을 치면 칠수록 기성종교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제도하듯.

현대판 앙굴리 말라

전국 교구본사 성보전시관 건립

국고·市道 4백억원 지원 약속

도난당한 송광사 성보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가운데 전국 교구본사의 대부분이 성보전시관을 건립중에 있거나 건립계획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성보보존과 관리에 밝은 앞날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전시관을 건립중인 직지사 통도사 송광사 부석사와 더불어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수덕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등이 성보전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개최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밝혀진 것으로 교구본사들이 건립하는 전시관 추진시기를 96년~98년으로 잡고 있다. 해인사등 성보전시관들의 총 예산 규모는 6백억원으로 국고지원 2백억, 시·도 지원 2백억과 당해 사찰에서 2백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흥사의 경우 서산관, 초의관, 민족문화기획전시관, 임사문화재전시관등과 시청각 교육실을 갖추기로 했으며 수덕사는 오는 4월6일 전시관의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문화재관리국등 정부에서 불교계가 문화재의 교구본사단위의 집중관리방식을 채택할 경우 유물보존 시설건립비를 예산에 반영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단순한 박물관보다는 복합적인 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시설건립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계종 본사 예산 5% 중앙승가대 건립비 지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23일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각 본사별 예산의 5%를 중앙승가대 이전 건립비에 지원키로 결의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의장으로 24교구중 23교구가 참석한 이날 주지회의에서 △교구산중총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방종법에 포함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으며 △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허가를 득함에 따라 본사차원에서 더욱 많은 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찰관람료 결정 자율화 및 예치금 사용신고제에 따른 시행령 개선안이 나오는대로 인상폭을 조정 실시키로 했다.

한·중·일 회의 대표단 파견

종단협 5월 22~23일북경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스님)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중일 3국 불교회의」의 대표단을 30~35명, 참관단을 1백70여명으로 정하고 명예단장에 월하스님(조계종 종정) 단장에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추대했다.

한편 여의도에서 열리는 봉축대법회를 포함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30개 종단이 단합해 여법히 봉행키로 결의했다.

승가대 발전위 출범

오는 7일 롯데호텔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의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가 오는 7일 오후 5시30분 롯데호텔에서 출범된다.

부처님도량서 뛰놀고 싶어요 15면
교수아들의 살인을 보고 15면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폐전 변압기(유입, SF6 GAS, 전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폐전반, 종합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 산업용 기기및 설비 : 펌프 압축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각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조설비 ●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크레인용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 건설 : 초고압라, 주택건설, 각종 산축 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종도와의 약속 실천 기대

사 설

작년 3월29일 불교계의 진보적인 젊은 불자들로 구성된 8개의 모임이 뜻을 같이한 〈범종단개혁추진회〉의 발족은 한국불교의 역사상 적지않은 변혁을 가져다 주었다.

돌이켜 보건대, 개혁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종단으로서는 적지않은 희생을 치렀고 국민으로부터는 외면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첫째, 총무원 청사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과 파괴현장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을 때, 대외적으로 비친 청정승단의 모습은 여지없이 일그러졌으며, 신도들의 신심에 상처를 주었다.

둘째, 한국불교 역사상 종정이 불신임을 받고 또 총무원장이 중징계를 받고 종단 박으로 밀려난 것도 처음있는 일이며, 해종행위자 징계 과정에서 문중이나 계파 혹은 어용성에 의하여 형평을 일부 잃었다는 후문도 만만치 않았다. 말하자면 서원장의 3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직도 요직에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몇몇 본사를 비롯한 중요 사찰 주지 내지 새로 구성된 종회의원(직능 및 일부 지역)이 개혁의 일부 주도자들에 의하여 타당성을 잃고 선임되었다는 점과 역대로 종단행정의 언저리에서 요직을 담당하던 스님들이 아직도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혁의지에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세인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 점은 아직도 불교집안에 깨끗한 민주의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개혁적 성과도 많다.

아직 실용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교구종회의 구성과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발전된 승단의 민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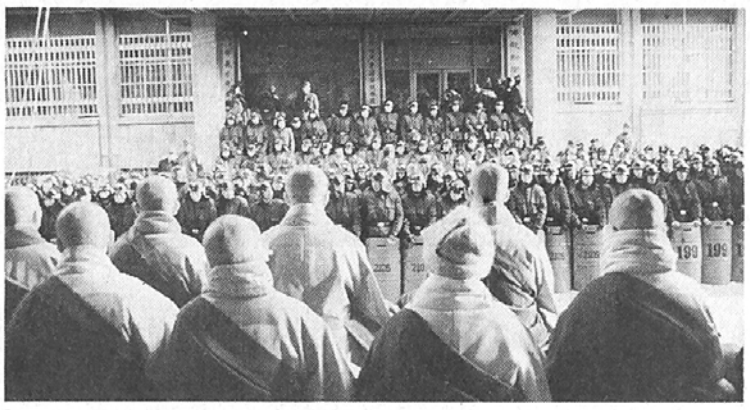
또 정화 이후의 3대사업으로 추진해온 교육·포교·역경 가운데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으로 격상되고 예산까지 별도로 편성된 점은 역사에 남을 개혁불사라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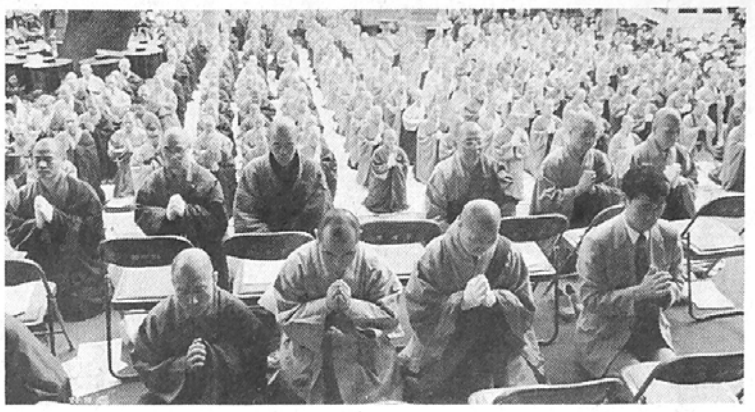
개혁완성의 숙제를 계승하여 출범한 송월주 총무원장팀은 과거 어느 팀보다 지지와 정통성을 지녔다고 본다. 비록 전 승려가 참여한 직접선거는 아니었지만 선거인단의 공정한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원에서 주관한 승려재교육의 첫단계로서 본사 주지·교계 중진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관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부터 따라주고 협력하는 변화된 의식은 조계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법인이 인가되어 중생의 곁으로 다가선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보살행을 실현하려는 종단의 의지라 여겨진다. 실다운 사회사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바라건대 총원장팀은 개혁의 정신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용단을 갖고 종도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불교종합병원의 설립, 사찰운영의 공영화 추진, 화합된 종단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면복권도 빨리 실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조계종이 장단기 발전계획과 추진현황을 개혁 1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확연히 제시해 준다면 종도와 국민은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지지할 것이다.





◇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을 막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위해 사부대중은 하나로 일어섰다. 지난해 3월 26일 구종법회로 시작되어 4월10일 전국 승려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조계종사태는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열린마당

조계종 개혁 1년

열린마당

화합통해 정법향한 불사 재출발

종권 이해관계 구태답습 아쉬워

지 선 스님



3월 29일. 법난과 4, 10 승려대회를 거쳐 조계종 개혁종단의 집행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이 흘렀다. 1년을 되돌아 볼 때 잘못된 점도 눈에 뜨이나 전체적으론 매우 잘된 불사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의 종단 집행부와 전 종도들이 1년전 가지고 있던 개혁의지가 변질되거나 퇴보됨이 없이 행정은 물론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1주년을 맞는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의 개혁불사가 법과 제도와 사람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 특히 사람 문제(인적 청산)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식 개혁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이 되지 못하고 서의현 집행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목적 하나에만 전 종도가 하나로 결집되었었다. 그들이 퇴진한 뒤 개인과 문중 및 단체의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라 역시 종권과 이해관계로 다시 구태의연한 작태들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으니 무척 염려가 된다.

종단 화합차원에서 원만하면 수용했던 작년 개혁회의 결성부터가 잘못된 시작일까. 아니면 개혁 기간을 짧게 잡고 결벽증에 가까운 겸허한 심정으로 무책임하게 일을 서둘러 마친뒤 물러나옴이 잘못된 것일까. 물러가 쉬어야 할 사람들과 서의현 체제를 온존시켜주면서 이득을 보았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종권을 잡아도 자기는 계속 대접받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종단 인사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또한 부분적 작은 잘못을 가지고 개혁 전체를 평가하고 다시 뒤집고 싶은 사람들, 돈과 권력의 화신인 것처럼 그 맛에 성숙된 사람들이나 세속의 욕망을 절집에 와서 탈성하려고 바둥대는 사람들, 문중 과벌 의식과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어 있는 사람 등 등… 이 모든 고민들을 다 같이 나의 일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의식이 결여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래서 개혁은 지금부터이다. 집행부가 개혁 소신을 가지고 정법으로 나가야 하고 전 종도는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함께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참회하며 고민하고 있다. 〈백양사 주지〉

사찰 운영공개 제도화 추진 성과

비구니·재가불자 위상제고 필요

성태용 교수



작년의 조계사 사태는 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정말 불자로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의아스러울 정도의 무도한 세력과, 거기에 설불리 힘을 빌려준 정치권력에 맞선 사부대중의 처절하리만치 끈질긴 저항이 거둔 승리는 불교사에 혁명적인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뒤의 불교사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다. 대외적인 관계에서 보더라도 잘못 해석된 호국불교의 이름 아래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던 불교인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이에 상응하여 그런 불교계를 안중에 두지않던 정치권력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혁명적 승리의 힘을 입어 불교계는 한 단계 역사적 비약을 이룩하였다. 우선 그 개혁의 과정 자체가, 몇 사람이 움직이던 불교계를 대중의 뜻을 모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리고 사찰 운영의 공개 등을 제도화 한 것은 이상적인 교단의 형성을 통한 불교 발전에 꼭 필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의 전체적인 성공 여부를 한마디로 논하려 하기 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성과 등이 앞으로 불교계를 밝히는 힘으로 작용하도록 하려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일년의 개혁은 몇가지의 큰 문제를 남기고 있다. 우선 비구니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위상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사부대중이 진정한 사부대중으로 서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혁명적인 사태 뒤에 오는 지나친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개혁의 과정에 작용하여 조금은 불안한 체제로 개혁을 지속하는 종단이 출범한 느낌도 있다. 그리고 혁명적 사태가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대중의 힘에 의한 초법적인 조치의 성과는, 승단으로 하여금 앞으로도 쉽게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낳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사부대중을 이상적인 제도 속에서 조직화하고 그 힘을 든든한 울타리로 삼아 이러한 불안 요소를 극복하여야만 한다. 그 속에서 불교 중흥을 향한 지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국대 철학과〉

현대만평



개혁 1년 …

박 구 원

개혁 1년 조계종의 변화

종회의원 겸직 금지·교육체계 확립…신도 재적사찰 의무화

종무행정 3·29 법난이 일어난 지 1년.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주도한 개혁세력에 의해 3선을 꿈꾸던 서의현 체제는 무너지고 4·10 승려대회를 거쳐 개혁회의가 들어섰다.

개혁회의는 종헌종법 제·개정을 비롯한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했고, 송월주 총무원장을 수반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의 개혁이라든가 불교 자주화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조계종의 1년간의 변화를 짚어본다.

우선 조계종은 교육원·포교원의 독립별원화와 호계원의 신설 등으로 기구가 비대해졌다. 2원2실1처1소2부9국이 새로 늘어났고 따라서 예산도 지난 해보다 두배가량 늘었다. 그리고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참선수행 도량인 선원을 기초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하여 기초선원 이수자는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했다.

한편 입법기구인 종회와 원로회의의 권한이 강화됐다. 특히 원로회의는 종정추대권과 중앙종회 해산제청권을 갖고 있다. 종회 역시 의회기능 활성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교구종회가 신설, 교구내 중요한 사항을 의논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 교구행정의 감독기관역할을 한다.

사찰운영 수입과 지출을 알기 힘들었던 사찰의 재정공개가 종헌으로 명문화됐다. 주요 사찰들의 종무집행을 감독하고 삼보정재의 유출방지를 감독하기 위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감사국 설치와 함께 각 사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찰운영 및 재정수입·지출 등을 공개하며, 신도회장과 부회장이 참여 사부대중에 의한 사찰운영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신도들은 의무적으로 하나의 재적사찰을 등록하며 신도회에 가입해야 하고 1년에 한번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계종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종회의원의 교구본사 주지 겸직금지와 승풍진작을 위한 '선교육 후득도' 확립.

행자교육원을 거쳐 승가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재교육과 전문교육기관도 상설화시켰다.

바른 불교를 실천하는
東南佛教新聞

깊은 산중의 수도승, 도시의 골목, 시골의 논두렁에서도 풀뿌리 불교는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東南佛教新聞은 그러한 작은 것을 소중히 주워모아 바른 불교 실천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400만 부산경남 불자를 위한 지역 대변지로서 시방삼세 온누리에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1995년 3월 일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범천1동 719-4번지
- 대표전화 : (051) 643-3587
- 팩 스 : (051) 633-9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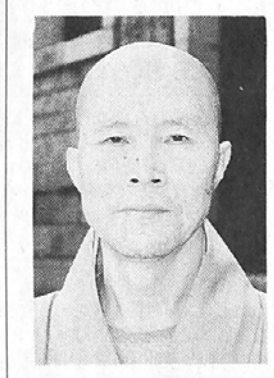
동남불교신문 창간준비위원회 위원장 정 기 학 합장

시론

화합 없으면 발전도 없다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과학분야에 걸쳐 나날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맞춰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내놓은 처방안이 '세계화'다. 세계화는 구호만 요란하게 내세우고 각종 제도를 틀에 맞춰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세계화의 주인이 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사회는 국제관계에서 확고한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불교계 역시 김영삼정부의 출현이후 자기변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가운데 우리 불교계는 미래불교에 걸맞는 몸체를 갖기위해 본의 아닌 시련과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 결과로 불교중흥과 교세신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작지않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의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는 거듭나는 불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 개혁종단의 임무수행에 충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집행부 구성원은 과거에 보기 드물게 박사스님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능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짜여져 불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자들의 단합된 힘이 한곳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불교의 개혁과 세계화 속의 불교역할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불교계에는 현재 당면한 주요현안불사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불교유선텔레비전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4년제 승격, 대형불교병원 건립, 상설교육도량 확보 등 삼보정재가 쓰여져야 할 불사가 있다.



동 광

〈도선사 주지〉

빨리 꺼야할 갈등 불씨

이런 불사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꼭 이루어내야 할, 불자들과 종단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교계의 주요 현안이 희망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불자들은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 아직까지 구원(舊怨)이 남아 있고 갈등의 여파가 미진하게나마 남아 있는 듯한게 교계의 분위기다. 무엇보다 징계스님들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 교계가 또 한번의 흥역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불교계를 진보대 보수, 개혁대 반개혁구도로 나누어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교는 '4부대중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애초 부처님은 교진여 등의 제자들을 맞아들여 교단을 구성했다. 중(衆)은 '무리'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라는 의미로 더 가깝게 사용된다. 화합하지 않으면 불교내부의 문제는 해결되기 난망하다.

지금도 사부대중을 개혁대 반개혁으로 보거나 진보대 보수세력으로 이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시급히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보수 나름의 제도권 논리가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의 지향에서 오는 위험성을 경계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진보는 정체와 안주를 타파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 저간의 역사적 흐름이었다. 지혜를 실천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불교계는 이점을 깊이 인식해 어떻게 하는 것이 불교를 바로 정립하고 교세신장의 지름길인가를 잘 모색해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는 약

불교는 또한 자비의 종교다. 자비는 사랑과 관용을 모두 포용하는 불교의 근본이념이며 실천덕목이다. UN에서는 올해를 관용의 해로 정할 만큼 이부분에 대한 지구인의 인식도는 깊은 편이다. 부처님은 재세 당시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용서했다. 법에 의해 처단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으나 부처님은 참회하면 누구나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앙굴리마라를 제자로 삼았다. 국법에 의하면 사형됐어야 할 앙굴리마라는 훗날 피나는 수행을 통해 아라한에 오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불자들로서 용서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과 인식이 다르다고 해서,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단도를 휘두르는 것은 올바른 불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자비는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에 옮기기란 쉽지 않다. 능력있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사라면 비록 정치적 노선을 달리 한다 하더라도 과감히 발탁해 기용하는 것도 불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사부대중들 역시 문중과 지역에 따라 스스로 '네편 내편'하는 편가르기 식의 어리석은 일은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불제자'다. 법우애가 있어야 하고 '화합정신'을 발휘해야 그간 빈번하게 일어났던 불교계 내분이 사그라들 것이다.

앞으로 불교계는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스스로 자기변신을 꾀해야 할 분야도 적지않게 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첨단과학의 이기들은 이제 실생활 깊숙히 파고들어 우리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한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불교가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한다면 미래사회에서의 불교는 골동품종교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첨단과학시대에도 불교가 시대를 선도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며 인류에게 위대한 사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역시 2천5백년전 부처님이 설파하신 자비와 화합과 섭수를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자비와 화합과 섭수는 오늘날의 불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미래를 책임지는 묘약이라는 점을 널리 인식하자.

신행수첩

'佛心나무' 강산 푸르게
불교자원봉사연 식목행사

깊은산 울창한 숲사이로 울려퍼지는 메아리소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기만한 생활의 활력소다. 마음의 텃밭에 불심(佛心)을 심듯이 우리삶의 밑천이 되는 나무를 심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국토푸르게가꾸기 운동 제1차 사업으로 한강상류인 여주지역에 오는 4월2일 나무를 심기위해 출발한다.

이번 나무심기행사는 산림녹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식목후 목아박물관과 여주 신륵사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다. (02)723-6258



◇경기도 여주군 봉미산 기슭에 자리한 신륵사는 반짝이는 은모래와 유유한 여강의 흐름속에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웃의 고통함께 나눠
자비의 전화 상담원 교육

가정문제, 신앙문제, 이성문제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들과 만나게 된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웃의 고통과 어려움에 귀기울이며 진실한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에서는 제9기 카운슬러 대학을 열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오는 4월3일 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자비의 전화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상담원활동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737-7378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마곡사	2백21만5천원
▲황영진 고영희불자	12만원
▲익명의 스님	1천만원
▲익명의 불자	1천만원

〈2월 8~18일〉

•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불교중앙교원)

신세대에 민족맵시를
여불련, 개량한복발표회

우리나라 고유한 멋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각종 전통한복이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선다.

한복입기운동을 적극 전개해오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13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동방프라자 분수대앞(남대문)에서 '자선생활한복발표회'를 갖는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얼이 가득 담겨진 전통한복을 때와 장소에 구분없이 잘 어울리면서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복으로 개량하여 선보이는 이번 발표에서는 전통한복이 갖고있는 깊은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남녀노소를 총망라한 개량한복이 전시되는 이날 발표회의 모든 수익금은 '정신대 위령탑' 건립기금으로 쓰일 예정이어서 한층 의미를 깊게 한다.

(02)738-5586

농아자와 마음의 대화
연화복지학원 수화강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늘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수의 불찰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는가? '더불어 함께 살아라'라고.

30만 청각 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보급하고 포교와 수화 숙지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에서는 오는 4월3일에서 6월29일까지 석달간 기초수화강좌를 개설한다.

수화강좌는 연화복지학원 강의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에서 8시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자비의 천수천안이 된다.

청각 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함께하는 세상을 위하여.

(02)202-5831

세상을 밝게 사는 방법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

봄기운이 완연한 4월, 불자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성지순례 야외법회로 향한다.

불자들에게 밝은 웃음과 효율적인 법회운영을 위해 정진하는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4월3일부터 24일까지 특강을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7시 돈암포교원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4월3일 게임송, 모임의 진행 △4월10일 꾸미기, 그리기, 찬불가, △4월17일 교리와 신앙, 민속춤 △4월24일 법회의 운영, 도구게임등이 다채롭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다양하고 알찬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을 통해 잊혀져가는 밝은 웃음을 되찾아 맘껏 웃어보자. (02)934-1748

불교운동앞장 서동석씨 화재로 가옥잃어 어려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불자(佛子)들은 모두가 인연법에 따른 형제자매다.

그런 불자중의 한사람으로 그동안 민불련의장으로 불교인권위 장기수대책위장, 한국재가회의 간사장등을 역임하며 활동해온 서동석씨의 집이 지난 20일 연쇄방화로 보이는 불에 의해 전소됐다. 이로인해 화재당시 충격으로 칠순노모는 중풍증세가 악화돼 거동을 못하고 있으며 서동석씨의 가족은 친척집 등으로 흩어져 기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동안 불교운동에 앞장서 온 서동석씨를 돕기위한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린다.

성금모금:국민은행 023-24-0289-620 김인가

■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새봄…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자

맑고 향기롭게

새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와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는 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기 운동을 펼칩니다. 4월 한달간 계속될 이 운동은 각 가정과 직장에서의 나무심기와 화단 가꾸기,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맑고 향기로운 숲을 만들어 주는 행사를 펼칩니다.

맑고 향기로운 숲 만들기

▲일시:4월 23일 ▲장소:파주 관음 대비 양로원
▲동참금:2만원(묘목, 교통, 식대포함)

꽃씨 나누기

이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에게는 꽃씨를 우송해 드리고 나머지 성금은 각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꽃씨를 보내는데 사용됩니다.

▲꽃씨 종류:붓꽃, 꽃창포, 원추리 ▲동참금:1만원

연꽃 스티커 무료 배포

스티커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에서는 소정의 발송비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송비:1백장 이하 5천원
1백장~5백장 1만원
5백장~1천장 2만원
▲연락처:(02)741-4696(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가정을 도량으로

바른신행으로 행복의 복밭 일궈야
불법생활화된 가족은 화합·기쁨 넘쳐

서울 백상창 신경정신과원장은 며칠전 모학원 이사장 살해사건의 범인이 대학교수인 큰아들로 밝혀지자 "붕괴해 가는 인간성의 원인이 가정에 있다"며 "특히 살해범이 종교에 귀의한 신앙인이라는데 충격을 감출수 없으며 가정에서의 올바른 신앙활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단위다. 따라서 불자는 가정을 '불법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삼아야 한다. 불자들은 흔히들 '도량'을 '사찰'로 생각하곤 한다. 사찰에 가야만 기도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처처(處處)가 정토'라며 어느곳에 있더라도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생활하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다. 온가족이 다함께 기도하며 다함께 불심을 쌓아간다면 그 가정은 언제나 화합과 기쁨과 경사로 넘칠 것이다.

가정에서의 수행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수행 등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수행이란 염불, 독경, 참선, 참회, 기도 등을 들 수 있다. 형식없이 일상생활에서 하게 되는 수행으로는 자비, 보시, 인욕등이 있다.

매주 일요일이면 인근 사찰을 참배하는 부산 대평동 이호준어린이(국교 6) 가정은 얼마전 부산 불교방송이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늦잠꾸러기 호준이가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식구들을 깨운다. 5시 30분 부터 라디오 예불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예불은 가족모두가 "오늘도 이웃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는 발원으로 끝난다. 호준이가족은 일찍 일어나게 되자 아침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공덕안 청소등을 통해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물론 가정을 도량으로 하기 위해서는 온가족이 불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보다 큰 유산은 없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가정을 도량으로 만드는 실천행'을 펼쳐보자.

1995 삼화불교대학 통신생 모집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 각과 주간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자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불 교 학 과	2년	• 야간 20명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고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 출가희망자
	4년	• 통신 2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3명		
중 국 어 과	2년	• 야간 20명 • 주간 5명		
불교미술과	2년	• 주간 3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 통신 20명 • 주간 5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 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 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4월 7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511-2026~8, 511-1080)

주소 : 우편번호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교 차 로

본사주지회의 부의장 피선



고산스님(쌍계사 주지)은 지난 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조계종 본사주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사주지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본사주지회의 의장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뉴욕서 '인류평화를…' 강연



서경보스님(일붕선교종 종정)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산하 세계교육자협의회 이사회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자연사랑'을 주제로 강연하고, 뉴욕 백림상에서 세계평화기념법회를 갖기 위해 23일 출국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에

월서스님(제주도 천황사 주지)이 지난 21일 열린 조계종 제1회 초심호계위원회에서 초심호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전서 청년불자 대상 강연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은 지난 15일 열반재일을 맞아 대불청 대전지부의 초청으로 대전시민회관에서 강연을 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청년불자가 이 시대의 희망"임을 강조했다.

학인스님과 청평사등 답사



홍선스님(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은 학인스님들과 함께 고려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청평사'와 '강원대박물관'으로 정기답사를 떠난다. 4월1일 오전8시 승가대 운동장에서 출발 예정. (02)921-5825

승가대서 '승만경' 강의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승가대 동아리 학연회가 주최하는 '승만경' 강의를 지난 22일부터(매주 수, 오후6시) 정진관 401호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창립기념법회 및 총회 개치



법장스님(생명공양실천분부 본부장)은 오는 4월8일 토요일 오후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생명공양실천본부 창립 1주년 기념법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

'시대불교' 재창간법회

혜은스님(시대불교신문사 사장)은 법무교화신문을 시대불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재창간하는 기념법회를 지난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봉행했다.

서울대의대 첫 여성동창회장



이길녀씨(인천 길병원 이사장)가 서울대의대 동창회의 첫 여성회장이 됐다. 이씨는 지난 17일 하야트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추대됐다.

문화예술대학원 총학생회장에



신성일씨(영화배우)가 지난 21일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제1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됐다.

신성일씨는 연극영화과에서 영화영상을 전공하고 있다.

영세가정 학생에 장학금 1억원

이관희씨(서남재단 이사장)는 지난 18일 불교방송국 공개홀에서 제15기 서남장학생으로 선발된 영세가정출신 고등학생과 대학생 1백83명에게 1학기 장학금 1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한국불교와 서역문명' 특강



김호성법사(백화도량 상임법사)는 4월 7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수미정사에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사학과)를 초청, '한국불교와 서역·이슬람문명의 교류'를 주제로 백화도량 제30차 특강을 갖는다.

'아이사랑' 제 2사옥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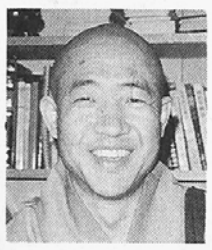


정용우씨(대한불교 찬불가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아이사랑 제2사옥을 동작구 신대방동에 건립, 지난 20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창립 1주년 기념법회

왕선지씨(부산여성불자회 회장)는 지난 22일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홀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선 일 스님



"한국불교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는 것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입니다."

서울을 비롯 전국 5개 광역시 중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장 선일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장, 부루나포교원 원장).

4월1일 오전 11시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공원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게 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의 감시고발, 위험성 및 역기능을 알리는 홍보활동, TV 및 비디오 모니터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아이들과 늘 함께해 온 선일스님은 "유해물질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함은 불자로서,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필〉

"청소년 건전성장에 불자들 관심 쏟아야"

"동심 맑게 자라야 사회 청정"

사랑의 일기장 보내기운동 고 진 광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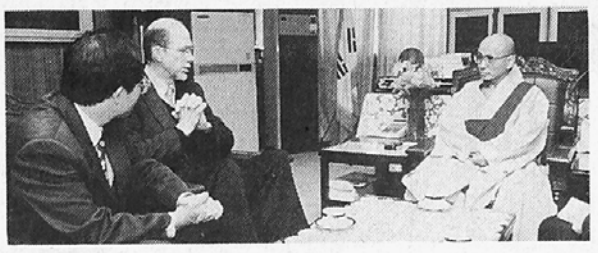


◇ 고진광씨

지난 20일 강원도 6백11개 국민학교 12만명의 어린이에게 12만권의 「사랑의 일기장」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는 고진광씨(인간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무총장, 「사랑의 일기장 보내기」 실무책임자).

달마청년회의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한 고씨는 "「사랑의 일기장」은 부모와 자식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며 "혼탁해져 가는 사회에 청량제로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씨는 "1만원이면 20명의 어린이에게 「사랑의 일기장」을 나눠 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추협의 1구좌 가입운동에 동참해 시민운동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2천만 불자의 동참을 부탁했다.



국제종교자유연맹 총장 월주스님 예방

로버트 트래어 국제종교자유연맹(IARF)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오전10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96년 원광대에서 개최되는 'IARF 96 한국세계대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내년 대회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다기를 증정했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개원식 성료

동국대가 대학 역사상 최초로 설립한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장한기 박사)의 개원식이 지난 21일 오후6시30분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에서 거행됐다.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송석구 총장 서돈각 정재각 신국주 민병천 전 총장들과 황명수 총동창회장과 재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원식 법회후에는 재학생들의 예술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문수사 불사 · 불우노인돕기 서화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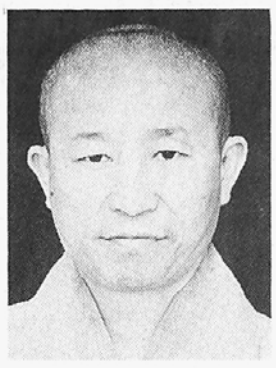
문수사가 주최한 불사 및 불우노인돕기 서화초대전이 지난 22일 세종문화관 전시실에서 문을 열어 27일까지 전시됐다.

좌로부터 청교련회장 현성스님, 문수사 주지 해정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국회의원 송두호씨 등국대 송석구총장, 국회의원 송광호씨, 죽봉 황성현씨.

인터뷰

"새승풍 창출에 앞장 종단개혁 지속에도 한몫"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 · 전문인력 발굴



선우도량 2기 상임대표 재선
도 법 스님

"올바른 승가교육체계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해 새로운 학풍을 창출하고 종단의 지속적 개혁에도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지난 16·17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교단의 미래와 결사운동'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수련결사에서 1기에 이어 2기에도 선우도량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중임을 맡은 도법스님은 개혁회의에서의 선우도량의 역할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심층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또렷이 인식하게 된 계기였지요. 이때 불교자주성 획득 등을 선도한 선우도량의 역할 역시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법스님은 "현대문명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불교적 진단을 통한 방향 모색을 현실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체 역량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혁의 명분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것과 이를 계기로 불교역량과 의식강화를 꾀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도법스님의 이런 견해는 설정스님(중앙종회 의장)이 기조강연에서 강조한 올바른 제도개혁과 신심(信心)·원력(願力)·공심(公心)의 승가정신 회복이 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것처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도법스님이 역설한 승가교육의 중요성도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지적한 "스님들에게 불교대학과정을 필수화해 그 과정을 미친후 포교, 수행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본틀의 개편을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실상사 백장암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 선원 모델 창출과 화엄학림회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의 교학연구에 선우도량의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밝힌 도법스님은 2기 선우도량의 우선과제가 시대에 발맞춘 승풍진작과 승가교육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도법스님은 "출가수행자들이 소홀하기 쉬운 역사공부를 위해 조계종단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교학·참선·포교·행정·사회활동 등이 조화를 이룰 때만이 불법을 통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다"는 소신피력도 잊지 않았다. 〈남원 실상사=한명우 기자〉

게시판

▲재가회의 문화예술분과위 모임=한국불교 재가회의 문화예술분과위원회(위원장 정경연)는 4월2일 낮12시 계룡산 동학사 입구 금수산장(042-825-4358)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날 모임은 문화예술분과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좌담을 위해 마련된다.

▲제호 변경=영동불교(발행인 부동스님)는 오는 3호(4월1일자)부터 제호를 '강원불교'로 변경 발행한다. (0391)43-2985

▲부엄교실 수강생=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칼라 믹스·꽃집경영반·양재수강생을 모집한다. (02)985-0161

▲요가·불교호흡법 강좌=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김각현)은 오는 4월6일부터 2개월간 매주 수·목요일 오후2시 연꽃마을 법당에서 요가·불교호흡법·명상법등을 강의한다. (02)203-3677

▲'사랑방 전화' 노인상담=사랑방전화(대표 도반)은 60세이상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을 한다. 또한 사랑의 전화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기업체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02)720-9251~3

▲기초교리 개강=조계사 불교대학(학장 진현근)은 4월15일부터 3개월간 매주 목·금요일 (주간반 오후2시~3시30분, 야간반 오후7시~8시30분)에 강의하며 수강료는 5만원. (02)720-6742

▲자원봉사자 모집=참나청소년상담연구원(원장 김도각)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상담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카운슬러대학 졸업자나 불교교양대학 수료자로 40세이상 주부불자. (02)747-5787

▲국토순례모임=터사랑(회장 전숙희)은 오는 8일, 1박2일 인정으로 충남 예산 수덕사 및 유적지를 순례, 순례단의 참가신청을 받는다. (02)725-12845

▲불우이웃돕기=조계사 청년회 교무부(부장 방대식)는 오는 4월16일 산중다원에서 '혜명보육원을 위한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마련한다.

▲개원법회=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오는 4월2일 오전10시 중앙사무국 이전 및 만해교육원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 기원

천 수 천 안 관 음 송 가

자유평화 행복을 전하는 삼보합창단에서는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화합과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천수천안 관음송가 전국순회공연을 마치고 금번 서울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당 흥겨운 민족의 잔치에 함께 어울려 통일대업을 성취합시다.

대회장 불교텔레비전 대표 김 태 응
전국순회공연 봉행위원장 윤 지 원



- 작사 윤 지 원
- 작곡 변 규 백
- 지휘 변 규 만
- 합창 삼보합창단
  도선사합창단
  봉은사합창단
  성보사합창단
- 연주 삼보국악관현악단
  삼보무용단·춤자하
- 안무 민 연 옥
- Sop 정 회 정
- Bar 김 성 국

■ 때 : 1995년 (양) 4월 8일 (土) 오후7시
■ 곳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주최 : 불교텔레비젼, 조계종삼보사
■ 주관 : 삼보합창단
■ 후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조계종 총무원
은평불교사원 연합회, 한국일보사, 불교신문, 불교방송

● 공연문의 : 삼보사(02)352-6406~7

■ 찬 조 출 연 ■
- 대각사합창단
- 관음사합창단
- 불교성악회합창단
- 수국사합창단
- 효동선원 중앙 합창단
- 본각사 합창단

대한불교 조계종 삼 보 사

"38년째 소리 인생 늘 새로운 시작일뿐"



산문박의 禪

판소리 명창 **박계향** 씨

아버지·남편 반대 극복 전주대사습놀이 대통령상 수상

"다섯마당 완창 죽는 날까지 할수 있을지…"

아홉살나던 해였던가. 소리판에서는 전설처럼 불리는 임방울의 협률사가 목포에 들러 춘향전을 공연했던 것은 이 공연이 어린 박길련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임방울선생이 이도령역을 맡고 김옥련이 춘향역을 맡았는데, 춘향이가 너무 예뻤어요. '이 다음에 커서 나도 춘향이가 돼야지' 마음먹었죠."

박계향(57, 판소리명창)을 40여년 외길의 소리꾼으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였다. 협률사(協律社)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공연무대인 원각사(圓覺寺)가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자 국악인들이 임의로 만든 순회공연단체였다.

목포가 고향인 그에겐 어려서부터 '끼'가 다분했다. 틈만 나면 아버지의 유성기를 돌려 이화중선의 '추월은 만정하야 산호주렴 비치어들 제…'로 시작되는 판소리를 들었다. 훗날 그녀에게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의 영예를 안겨준 '심청가'의 '심봉사 황성가는 대목'이었다. 학교에서 노래시간이면 이 노래를 불렀다. 동네에서도 노래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러나 소리꾼으로 들어서기까지의 숱한 곡절은 선배명창들이 모두 그러했듯 예비되어 있었다. 삶을 온통 내던져야 하는 숙명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혹자는 '예술의 길은 도박'이라고 말한다.

주위선 고생길 만류

박계향씨 스스로도 가끔 자신에게 묻는다. "무엇이 그리 좋아 소리를 하려고 했을까…." 남들로부터 명창이란 칭송을 받으면서도 이 질문은 그를 따라 다닌다. 대답은 없다. 말로써 구해지는 답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딱히 대답이 된다면 "한국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 때문일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소리에는 말로 표현못할 묘미가 있어요. 가령, 진도아리랑 하나만 갖고도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예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도 이 피의 흐름을 거역하지 못했다. 소리에 남다른 재주를 보여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았지만, 막상 소리를 배우겠다고 하자 아버지의 반대가 대단했다. 그때만해도 판소리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유랑극단의 가설무대에 서거나 술방에 갈밖에 없었다. 극단에 들어가도 일정한 거처없이 떠돌아야 했다.

"어떤 부모가 고생길이 뻔한데 반대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그때 '네가 소리하면 비상을 먹겠다'며 안주머니에서 약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반대에 누그러뜨렸던 뜨거움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다. 열여섯살 되던 해 야밤을 틈타 집을 뛰쳐나왔다. 보성소리의 종가(宗家) 정응민선생을 찾았다. 당시 그곳에는 조상현씨가 정선생으로부터 춘향가와 심청가를 배우고 있었다.

3개월만에 고모에게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사진이 붙은 전단을 만들어 파출소마다 돌리는 등 한바탕 난리가 스쳐간 뒤였다. 아버지는 그를 방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그러나 몸속에 흐르는 피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귀에 들리는 건 소리 뿐이었고, 급기야 병마가 찾아들었다. 문여닫는 소리에도 까무라치고 가슴이 쿵광쿵광 뛰기 시작했다. 심장병이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딸의 길을 열어줬다. 목포국악원에 입학해 소리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임춘앵국악단' 국창 김연수선생의 '자랑국악단' '우리국악단'을 거치며 소리와 연극을 배웠다. 남도근선생도 빼놓을 수 없는 스승이다. 이때도 두각을 보여 '소리의 신동이 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좋아하던 판소리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산 적도 있었다. 결혼과 가난으로 소리공부를 할 엄두를 못낼 때였다. 한때는 먹고살기 위해 신설동 무교동 용산 등지를 떠돌며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이번에는 남편의 반대가 극심했다. 남편 몰래 박초월선생을 찾았다. 수강료를 못내 쉬는 날도 많았지만, 선생의 열창하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견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다락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목을 다듬었다.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간단하다. "미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일은 오직 소리뿐

87년이었다. 내리 이태를 본선진출과 장려상에 머물던 끝에 국악계의 최고 영예인 장원을 안았다. 제13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부문 대통령상.

"판소리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의 할 일은 소리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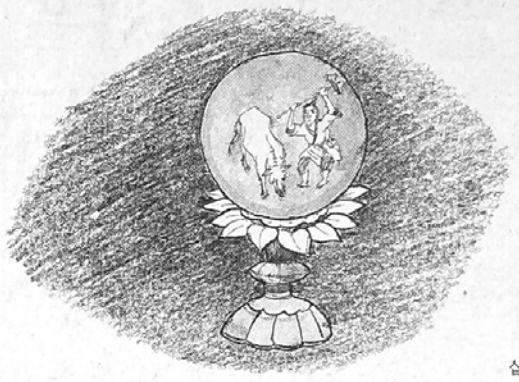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박계향 명창의 다음 할 일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 완창발표회를 갖는 것이다. 춘향가는 90년과 91년 완창공연을 가졌다. 완창은 보통 여섯시간이 걸린다.

"6시간 동안 관객을 붙들어놓기 위해서는 판소리의 흐름에 맞춰 슬픈 대목을 할 때는 내가 먼저 울어야 하고, 즐거운 소리는 저절로 어깨춤이 추어져야 해요. 춘향전만 해도 70여명의 인물이 등장 하는데, 춘향이도 되어야 하고 이도령, 춘향모친, 향단이도 되어야 해요. 따라서 보통 20년은 넘어야 부채들고 남들 앞에 설수 있죠. 3, 40년은 돼야 자기소리라고 내놓을 수 있고요."

올해로 그는 38년째 소리인생을 살고있다. "아직도 공부가 모자라요. 죽을 때가 되서야 뭔가 될라나 봐요."

그가 전무후무한 한국 최고의 목소리로 추앙했던 임방울은 '수궁가'를 부르던 중 무대에서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 목숨은 건졌으나, 임방울은 수술을 거절했다. 소리꾼으로서 생명이 끝난 이상 육신의 생명유지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박계향도 무대에서 삶을 마치기를 소원한다. 소리가 좋아 미치도록 살아왔으니,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고집이다.

〈정성운 기자〉



삽화 · 이기선

교수살부 하늘·땅 경노할 패륜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⑲

돈에 눈멀어 天倫을 끊다니 효순 일깨우는 계기 삼아야

세상이 갈만큼 갔는가. 인간이 막다른 벼랑에 부딛쳤는가. 마음이 병들대로 곯아 버렸는가. 온 세상이 모두가 암투성이다. 암을 치유할 능력도 없이 암의 세균을 온 세상에 퍼트려 버렸으니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엽기적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대난이 일어났다.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단 말인가. 하늘과 땅이 함께 경노할 일이다.

존속살해 최대죄악

이번 S대 김교수의 행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헤량할 수 없다. 금수도 못하는 일이다. 41세의 나이는 점잖을 나이고 사회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며 또한 교단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으니 지도자급이다.

학생을 지도하고 훈육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학식과 덕망이 구비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국내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여 도미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상당한 자질이 겸비된 인물이다. 또한 집안도 불우한 형편이 아니고,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여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원의 이사장이다.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이라 보겠다. 그런데 어찌 인면수심이 도사려 이처럼 흉악한 존속살해를 범했단 말인가.

지옥에 간 죄업인들은 한번이라도 참회하여 제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무간의 지옥, 화탕이 발설, 흑암, 독사등의 지옥에서도 언제나 삼독의 불길을 타올려 결에 있는 죄업인을 괴롭힌다. 아니 동타지옥한 부모형제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살상의 쇠갈퀴를 휘둘린다. 왜냐 지옥에 사는 죄업인은 무명에 휩싸여 있으므로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옥속에는 남이나 이웃이나 부모가 있을 수 없다. 아수라가 되어 무명흑암의 불길을 마구 쏟아내어 모두를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힌다. 이것이 지옥의 꿈이요 망상이다.

이 김교수가 지옥의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악몽의 지옥꿈에 사로 잡힌것은 정신적으로 파괴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극악한 경우가 닥쳐오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생명을 대하게 되면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이 앞서야 하는데 단말마적인 흉악성이 폭발하였는가.

사람이 살다보면 몇고비의 난항이 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난항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해결하려는 슬기를 찾아내여야 함이 정칙의 인간사이다.

이 정칙의 원리를 빗나가게 되면 바로 인간은 야수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고. 연전에는 부모를 살해방화한 사례가 있었다. 이때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군은 20대라 정신적 미숙으로 광인적 행위를 자행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김교수는 유복한 부모와 단란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다. 또한 서양의 지식도 갖출만큼 배웠고, 지금의 직업이 교수이다.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인격이 사회적으로 부여되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부러워 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 행운아이다. 앞으로 금융학원을 경영하게 될 후계자이며, 온갖 행운과 명예를 향유 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행위를 상도 하였을가. 김교수의 본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것이다. 악마의 신에 유혹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 악마가 누구인가. 무명 삼독이다. 암흑 천지에는 일체 공간이 칠흑이다. 앞뒤가 보이지 않는다. 막힌 공간을 찔러 보면 어떨가 하고 무명의 벽에다 창칼을 찔렀다.

나락에 떨어졌다. 무명에다 빛을 밝혀야 함에도 살인적 창칼을 휘둘리면 흑암지옥 광대지옥에만 떨어지게 된다.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의 일들은 한 사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남의 일이라고 사찰시만 할 것인가.

오탁말세 조짐인가

사바세계는 무서운 세계가 되었다. 옛날의 사바세계는 고통만이 현전하였는데 이제는 아들이 부모를 살육하고 살상하는 일들이 한둘 늘어가니 오탁말세의 조짐인가. 아니다. 우리들은 범망경에서 말씀한 효순심(孝順心)을 장양하여야 한다. 효는 받들어 공경함과 부모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수순한 마음이다.

정말 김교수 당신이 부모를 살해했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소. 참으로 당신이 살해하였다면 당신은 사람으로서 아수라의 대역한이 되었소. 부디 대역죄의 사슬을 참회로서 극복하고, 이웃에게 자비효순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오.

광복 50주년 국태민안 남북평화통일 속성취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한국불교선사 스물한분 초청 21일간 대법회



禪은 동양정신문화의 정수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근원이 되어줄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 시대는 올바른 가치관의 상실과 인간존재의 뿌리를 망각한 도덕성의 결여로 물질만능에 밀려 정신 세계의 황폐함 등으로 가득차 참된 자기 구현이 어려운 때 입니다.

인간이 참된 자기를 모르고 한생을 산다는 것은 삶을 덧없이 소비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끊임없는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번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는 **제방의 선사스님** 21인을 모셔서 고귀한 선법문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하고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본주의가 세계인의 삶의 지표가 되게끔 선법회를 여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 사람이 진리를 찾는 길을 올바르게 알아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자기의 설 곳을 분명히 관찰하면 지혜의 광명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개개인이 세계화의 일조로 기여하게 될 것이오니 많은 분들이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대안락의 양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39년 2월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진제** 합장

법회일시
1995년(양)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매일 오후 2시)

법회장소
해운정사(해운대여상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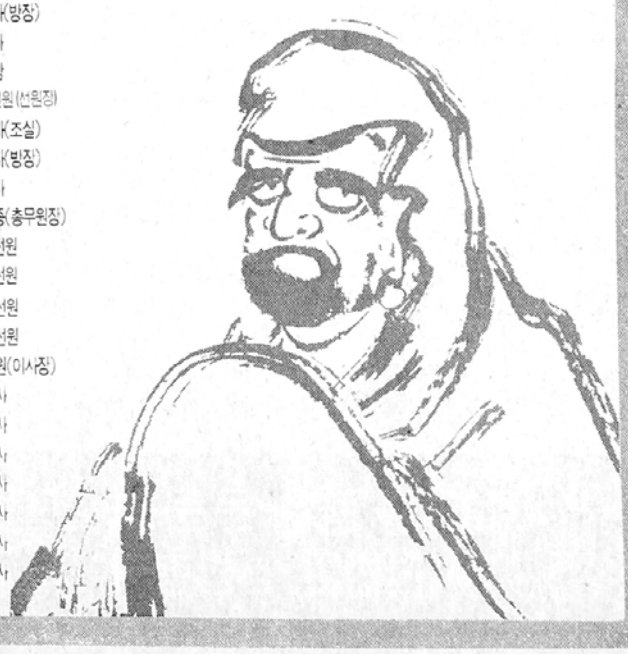
주 최
해운정사신도회

후 원
BBS 불교부산방송 • btn 불교TV
부산불교 각 신행단체

문 의
(051) 746 - 2256, 746 - 4812

초청 법사님

양력 3. 31	진 제	큰스님	해운정사(조실)
4. 1	승 찬	큰스님	송광사(방장)
4. 2	대 정	큰스님	범어사
4. 3	활 안	큰스님	천지암
4. 4	혜 국	큰스님	남국선원(선원장)
4. 5	도 원	큰스님	고운사(조실)
4. 6	원 담	큰스님	수덕사(방장)
4. 7	암 도	큰스님	심원사
4. 8	월 주	큰스님	조계종(총무원장)
4. 9	우 룡	큰스님	학성선원
4. 10	화 산	큰스님	보광선원
4. 11	범 행	큰스님	팔달선원
4. 12	성 수	큰스님	법수선원
4. 13	정 일	큰스님	선학원(이사장)
4. 14	월 탄	큰스님	용화사
4. 15	근 일	큰스님	부석사
4. 16	혜 정	큰스님	법주사
4. 17	무 진	큰스님	동화사
4. 18	혜 인	큰스님	약천사
4. 19	법 홍	큰스님	송광사
4. 20	숭 산	큰스님	회계사



학술 단신

보조·태고禪 집중조명 '보조사상' 8집발간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호)이 '보조지눌과 태고보우의 선사상'이란 주제로 〈보조사상〉 제8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지난해 7차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고려임제선법의 수용과 전개'(서윤길), '조계종에 있어서 보조의 위치; 형성과 법통문제'(법산) 등 4편의 논문과, 연구회원논문 2편이 게재돼 있다.

'21세기 종교의 과제' 강연

윤이흠 서울대교수(종교학)는 지난 25일 오전 8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열룸에서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 종교인 조찬연구회서 '21세기에 당면할 종교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불교학연구회고 전망' 불문연 30주년 논집간행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개원 30주년(1992)기념 논집 〈한국의 불교학 연구, 그 회고와 전망〉을 뒤늦게 발간했다.

이 논집은 그간 국내 불교학연구의 경향에 대한 개괄적 분석과 주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경향에 대한 전망과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와 환경' 강좌 외국모범사례등 발표

환경운동연합은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수유리 크리스천아카데미 다솜교육관에서 제1기 '지방자치와 환경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방의회의 역할, 외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범사례들이 다뤄졌다. 강사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이시재 가톨릭대교수, 시인 김지하씨, 고건 전서울시장, 김상종 서울대교수 등.

조선시대 불화논문 발표 한국미술사학회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이대 박물관에서 제91회 월례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은 '조선전기의 서묘 불화'(박은경, 동아대)와 '조선시대 묘법연화경판화연구'(박도화, 동국대) 2편.

'고대 한국의 ' 출간

한국사 특히 고대국가와 토착신앙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고려대 최광식 교수가 불교 수용 이전 토착신앙에 대한 저서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한길사 펴냄)를 출간했다.

"혜초스님은 동서교류 중세사 연구의 개척자"

한국불교 교류사 연구하는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교수



◇무하마드깐수 교수

중국 선유사서 上表 발견…한국불교 南來說 주장

"혜초의 발자취를 현지답사하면서 중국밀교에서 차지하는 혜초의 위상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혜초가 선유사(仙遊寺)에서 기우제를 지낸 후 황제에게 올린 '상표(上表)'를 새로 발견한 것이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겠지요."

한달동안 혜초의 편력을 따라 중국현지 답사여행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귀국한 무하마드 깐수 교수(단국대 사학과)의 소감이다.

혜초의 행적과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간의 연구성과를 재삼 검토해 보면 보완·재고돼야 할 문제들을 알 수 있다는 그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문의 발굴, 전반적 여정 특히 북천축(北天竺)으로부터 엔지까지의 노정 확정, 현존 잔권(殘卷) 내의 공백자와 결자의 보완, 지명비정(地名比定)의 재검토, 서역기행의 역사적 의의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깐수교수는 여행기의 전편에 걸쳐서 혜초의 직접적 방문을 입증하는 관용 시문구(始文句) '從··行··曰··至··'의 사용과 기술내용의 정확성, 그리고 대식국(大食國)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근거해, 혜초의 서역여행의 끝은 통설처럼 토카리스탄이 아닌 대식국(이란 북부)의 나이싸불 지방일 것이라는 주장을 〈정신문화연구〉 제54호에 게재한 바 있다.

"혜초는 사상 최초로 아라비아를 '대식'으로 명명하고, 한자문화권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식현지 견문록을 통해 8세기 인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지역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남김으로써 동서교류와 중세사 연구의 개척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깐수교수는 '한국불교의 남방전래설'의 주장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래전부터 막연한 설화로만 치부되던 이러한 주장을 '한국불교남래설시고'란 논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학술적 가설을 세운 이가 바로 그다.

금강산유점사의 53불상의 래박(來泊)이나 강원도 낙산의 관음신앙, 가야 건국설화 중의 불교적 요소 등이 남방전래설의 주요 논거다.

"불교의 정확한 남래(南來) 시한은 아직 단정할 수 없으나, 유점사의 53불상이 신라 남해왕 원년(기원 4년)에 래박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남래불교는 후한 명제 영평10년(기원 67년)에 전래한 중국불교보다 63년, 그리고 북래한 고구려불교보다는 약 370년이나 앞서 전래된 것으로 됩니다. 이밖에 수로왕의 불행(佛行)을 기준삼아도 고구려보다 2백년 앞서게 됩니다."

깐수교수는 이같은 남방불교의 전파 및 친승관계와 성격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논문을 내년에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4년 내한한 깐수교수는 한국 여인과 결혼한 필리핀인. 서울대 등에서 공부한 후 단국대교수로 재직하면서 동서교류사를 전공, 혜초와 그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연구논저인 〈신라·서역교류사〉(단국대출판부,1992)를 비롯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불교의 교류사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김재경 기자〉

법경스님, 뇌허불교 학술상 수상

'제일의공경 상속설' 연구로…내달5일 시상식



◇법경스님



◇심재룡교수

법경스님(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이 〈인도철학〉 3-4집에 게재된 논문 '제일의공경(第一義空經)과 바수반드(Vasubhandhu)'로 제12회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실재론적 철학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에 맞서 이의를 제기하고 달마(dharma) 이론을 비판한 경량부(經量部)의 '상속설(相續說)'이 연구의 핵심이다. 논문은 〈제일의공경〉을 연구의 길잡이로 삼아, 바수반드 의 유부(有部)에 대한 비판방식과 상속설의 전개과정을 그가 인용한 경전들을 재검토하면서 규명하고 있다.

뇌허학술상은 故 김동화박사의 학덕을 기리고자 뇌허불교학술원(원장 전관응)이 매년 시상하고 있는 불교학술상. 시상식은 4월5일 오전10시 정각사에서 갖게 된다. 상금은 2백만원

한국학연구교재 불교분과 심재룡교수등 집필자 선정

서울대와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편찬하는 '한국학연구교재'의 불교분과 책임집필자로 심재룡교수(서울대)가 선정됐다.

지난 15일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주최 '영어권 사용 한국학교재 편집회의'에서 불교분과 집필을 맡은 학자들은 기초도입부에 김영호교수(인하대), 통일신라 교학사상에 정영근교수(서울산업대), 고려불교에 최병헌교수(서울대), 조선불교에 심재룡교수, 근대불교에 허우성교수(경희대)로 밝혀졌다.

심재룡교수는 "한국불교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따르면서, 동시에 주요 교리체계와 기본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집필 방향을 소개했다.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해인사

〈관음전〉

七重寶樹圍金界
(칠중보수위금계)
一片冰心在玉壺
(일편빙심재욕호)

此時聞木犀香乎
(차시문목서향호)
當下知梅子熟矣
(당하지매자숙의)
黃菊充庭秋富貴
(황국충정추부귀)
雙藤滿地古烟霞
(쌍등만지고연하)
身似菩堤心似鏡
(신사보제심사경)

관세음보살 자비심 찬탄한 게송

雲在靑天水在甁
(운재청천수재병)
칠겹 보수가 극락세계를 에워싸고
일편빙심이 옥 항아리 속에 들어 있네.
이때 물푸레나무 향내를 맡았느냐?
곧바로 매화나무 열매가 잘 익은 줄 알았다.
노랑 국화가 뜰에 가득하니 가을이 부귀롭고
얽키설키 등나무 덮인 숲 옛 산수 경계로구나.
몸은 지혜의 나무 마음은 거울과 같으며
구름은 청천에 물은 병안에

해 설 관세음보살의 한량없는 자비심을 찬탄한 게송이다. 관음전 전면 기둥에 붙은 이 주련의 내용만으로도 관음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충분히 알만하다. 글씨는 해강(海岡)의 필적이지만 게송은 세명의 조사들 것을 모은 것이다. 앞의 4행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게송이고 다음 3행은 황산곡. 마지막 1행은 약산의 게송이다.

각기 다른 게송을 이렇게 한데 모아 하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련의 묘미이기도 하다. 첫구절 「七重…」은 보장전의 주련에서도 쓰이고 있다. 다만 「金界」에 대한 풀이가 여기서는 금사계(金沙界)로 관세음보살이 사는 세계를 뜻하고 보장전에서는 금강계(金剛界)를 뜻하는 해석상의 차이를 갖는다.

〈안동 경안중 교사〉

구걸이 공덕을 쌓게 하는지

문 인도에서 겪은 일입니다. 구걸하길래 돈을 조금 주었더니 고맙다고는 안하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괜찮을 주니까 하는 말이 "당신 공덕 쌓는데 내가 왜 고맙다 하느냐, 당신 복 많이 지으라고 더 달라는데 뭐가 나쁘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안진경)

답 주었으면 준대로 받는게 받는 것 아닌 받는 것이지만 굳이 더 달라는 것은 뭡니까? 달라고해서 주는 게 무슨 공덕이겠습니까? 주고 받는 보시의 공덕이란 준 사이도 없고 받은 사이도 없이 할 때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을 때 일체제불과 한마음이 되어 했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게재가 아닌것,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지요.

가게에 물건을 사러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샀을때 돈을 냈다고 생색을 내겠습니까, 물건 내줬다고 생색을 내겠습니까?

나쁜업도 가벼워질 수 있는지요

문 스님께서는 각자 자신의 근본이 되는 주인공에 일체를 놓고 살라하시는데 가령 나쁜 짓을 하고도 주인공을 찾으면 업이 가벼워지는 것인지요.

(경남 양산군 양산읍·정달자)

답 우리들 각자에겐 무수히 많은 의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목록이 있습니다.

현세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잘못되는 일들도 다 업식, 말하자면 목록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되는 게 죄값을 치뤄야 한다는 의미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것을 잘 가도록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업식은 때로는 신장이 되고 때로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렇게해서 나를 가르치고 내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가만 있으면 법신이요 움직이면 보신·화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아이구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업이 많아서 이 고생인가' 하고 맙니다. 그럴 때일수록 '아하, 이거 내가 밖으로 끄달려서 그렇구나', '나를 경책해서 진화시킬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빨리 깨우쳐야 누적된 것 지우며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그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으라는 것도 본래 거기서 나온 것이니 그 도리를 알고 한 생각 돌려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억겁 거치면서 자기가 했던 것은 쑥 빼놓고 팔자타령, 남의 탓이나 하니까 업은 갈수록 두텁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누가 갖다주고 혹은 뺏어가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했다고 상 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깨우치질 못해 무명이 앞을 가렸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나, 주인공은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다 알고 있는 주인공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가 엄마를 믿듯이 그렇게 믿고 맡기면 분명코 스스로 터득하는 바가 있게 됩니다. 그게 공부가 되어가는 징조입니다. 맛을 보는 것, 체험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분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봉 대불련 총동문회 축

— 사단법인 창립 총회 —

전국 대학교의 불교학생회 동문은 스님, 법사, 학자, 신도, 청년회원을 막론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입시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시다. 제방 대덕 큰스님 지도교수 선배님께서도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하법어 :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큰스님
격 려 사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박사

- 일시 : 1995년 4월 16일(일) 오후 1시
  ◎ 회원은 등록(확인)하시고 12시 30분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빈은 서명하시고 1시 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소 : Hotel Lotte 3층 사파이어 볼룸
  서울 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 ☎ (02) 771-1000
- 등록 : 회비 2만원을 4월 10일까지 사단법인설립추진실무위원회 계좌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설립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신상철, 위원:법현스님, 박형권법사, 이의철, 최연, 김영국, 이영철

1. 전국 대학(교)의 불교학생회 동문은 대불련총동문회의 주인입니다. 총회에 오셔서 정회원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각 불교학생회 전·현 지도교수님 지도법사님 모두 초대합니다. 예약해주시면 대회 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3. 미리 등록하지 못한 회원은 당일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축하광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화 : (02) 234-9811, 237-5751
- 팩스 : (02) 237-4439
- 주소 : 우편번호 100-453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3동 368-100 전철3호선 약수역 출구 6번 중소기업은행건물 5층

대불련총동문회 대 회 장 명 호 근
사단법인 창립총회 공동대회장 이 순 규
공동대회장 송 성 선

◎ 온라인 계좌(예금주:신상철)
한국외환은행 139-19-32184-3 우체국(신당동) 011213-0067923
한일은행(약수남) 187-129640-12-101 농협(종로1가) 032-01-167303
중소기업은행(약수) 213-018286-03-011

수요인터뷰

"장학·의료·교육불사 매진할 터"

세부계획 수립되면 120여회원 모두 '한뜻 추진'

부산불교실업인회 세번연임

김 정 태 회장



"인연따라 오고 인연따라 가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겠지만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더 일하고 떠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실업인회의 제3대 회장에 추대된 김정태 회장은 이렇게 연임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는 놓으려던 그 자리에 다시 앉으니 어깨가 더 무겁다는 것.

-실업인회는 신행활동외에도 교화·장학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건립도 계획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일을 해 오셨고 임기 동안에 펼쳐 나갈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실업인회는 앞으로 장학사업과 의료사업,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각 사업 담당분과위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사업을 위한 1차예산 1천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의료사업은 세부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인회는 지난 4년간 불교방송 개국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닿지 않아 모든 준비상황을 개국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준비팀에게 인계했습니다. 그간 소요된 2억원 가량의 재원도 보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장학금 1천만원 확보
의료사업 연차실행

산사 정기순례로
큰스님 법문듣고
환경운동도 참여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전국 유일의 불자 경영인 모임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자실업인회가 결성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불자실업인회의 역할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불교실업인회 120명 회원 모두가 신심이 돈독한 불자이며 전문 경영인들입니다. 어떤 형태건 신행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너와 나를 구분않고 한 뜻으로 뭉쳐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불자 경영인은 얼마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도 이같은 모임이 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임 자체가 순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인으로서 개인 이익이나 집단이익에 휩쓸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불교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니까요. 불교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앞세우려는 허망한 행위가 드러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심과 보시와 봉사의 정신으로 경영인들이 모이는 그런 실업인회가 전국에 생겨나고 나아가 하나의 조직으로까지 통합이 된다면 불교의 힘이 얼마나 커질까하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개인적 신앙심을 다지는 것과 회원 개인간의 경영에 대한 상호협조 기능이 불자실업인회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불교실업인회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원은 매우 다양한 업체의 경영인들입니다. 수시로 만나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원간의 친목이란 바로 그런 의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기주의와 철저한 자기본위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엄밀한 자기성찰을 통해 부처님의 일등 제가자 되려는 회원들의 노력이 우리 실업인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정기적으로 산사를 순례하며 큰스님 법문을 듣는 외에도 환경보호운동에도 적극성을 보여왔습니다. 경영인으로서 불자로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맑은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불교,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견지하고 후손에게까지 남겨 줘야할 과제가 아닐까요. 자연에 대한 겸허함과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불심(佛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것과 공해, 환경오염 이것들은 모두 인과의 굴레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산불교방송 개국을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지난해 말 개국 준비에서 손을 떼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부산불교방송의 개국을 위해 지난 4년간 혼신의 힘을 쏟았었고 부산, 경남권 불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 관련업무가 추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방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개국에 필요한 기본재원 40억원은 순수한 보시에 의해 마련되야 했고 개국 이후에도 엄청난 재정지원이 필요해서 실업인회가 그 일을 맡으려 했었던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지난 일에 연연해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믿고 있기에 앞으로 더욱 좋은 일을 하며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개국된 부산불교방송이 잘 되길 바랍니다.

부산BBS 발전위해
역할찾아 수행할터

"깊은 신심얻어
덩실덩실 춤추는
참불자향해 노력"

-회장님은 어떻게 불교와 인연 맺으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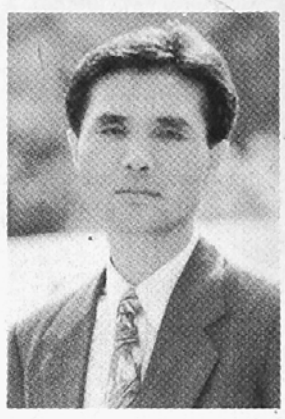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때부터 할머니, 어머니의 불공드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사직동에 연화사를 지으실 정도로 대단한 신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생존시에 그러셨듯이 훌훌 벗어 던지고 떠나신 성철스님을 존경하고 가끔씩 〈금강경〉이나 〈법구경〉을 읽습니다.

-한사람의 불자로서 오늘날의 불교신행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초발심자에게는 불교가 거룩해 보이고(1단계) 어느정도 알고나면 불교를 욕하고 남을 헐뜯고(2단계) 참으로 깊은 신심에 들어가면 불교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3단계)' 고 말입니다. 나도 덩실덩실 춤을 추는 단계에 오르고 싶지만 1, 2단계에서만 맴돌고 있으니….

〈임연태 기자〉

나의 수행일기



이 창 경 〈신구전문대 교수〉

어머님 얼굴서 부처님자애 발견

마음 바로 닦고 가진 것 나눠주는 보시 배워



모처럼 차려입은 어머니의 옥색치마 자락이 유난히 곱게 보였다. 보름맞이 불공을 드리러 떠나는 날 새벽,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는 퍽 조심스러웠고 경건함마저 느끼게 했다.

아버지께서 툇마루에 놓인 쌀자루를 메고 앞장 서신다.

"그냥 두세요. 제가 이고 갈테니."

"동구밖까지만…."

동이 트기도 전, 두 분은 어둠 속을 나선다. 그 날의 새벽 공기는 신선했다.

그날 아침부터 기다림은 시작되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불공을 드리고 싸가지고 오는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한지에 정갈하게 싼 하얀 시루떡 그리고 알이 굵은 대추와 밤 몇알,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그 시절, 불공이 뭔지는 몰랐지만 먹을 것이 생겨 좋았다.

저녁 안개가 마을을 덮을 무렵이 되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기야 절까지 30리 길이었다. 산 넘고, 개울을 건너고, 잡풀 우거진 산길을 헤치고 꼬박 한나절을 걸어야 했다.

기다림에 지친 나는 저녁을 먹고 마중을 나갔다. 마을 어구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다. 겨울 바람은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느덧 달빛이 길게 이어진 황톳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입에서 백까지 세었다. 그렇게 다시 열번을 세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멀리 희미한 그림자, 어머니였다. 하얀 달빛을 이고 황톳길을 걸어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옥색저고리는 달빛에 더욱 고왔다.

아득한 30여년 전, 내가 기억하는 절의 이미지는 어머니의 옥색 치마저고리와 정갈하게 한지에 싼 흰떡, 그리고 기다림이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정성으로 다니던 절을 직접 가본 것은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정월 보름이 가까운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절을 찾은 것이다. 쌀 말을 머리에 이고 3십여리를 거뜬히 걸어 다니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 80을 넘긴 나이에 걸을 기력이 없으니 천상 자식이 도움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께서 한나절을 꼬박 걸었을 그 산길을 두고, 새로 포장된 도로를 달렸다. 산 아래에 차를 세워두고 절을 향해 걸었다. 법당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색할 정도로 허름한 법당과 요사채, 그리고 법당 앞에 세운 3층 석탑, 어머니가 평생을 다니신 태학사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스님을 만나 안부를 묻고, 곧바로 법당으로 올라가셨다.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진 법당 안은 한겨울 찾는 이 없이 찬 기운이 돌고 있었다. 어머니는 허리춤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장을 꺼내 불전함에 넣으셨다. 그리고 향을 피웠다. 좁은 공간, 향냄새가 낮게 깔렸다. 스님의 예불과 축원이 계속되는 동안 어머니는 절을 하고 또 절을 했다.

눈을 들어 모셔진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원만한 자태, 갑은 듯 만 듯 묵상하는 눈매, 어느 무명의 조각가가 오로지 불심으로 한칼 한칼 새겼을 것이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수없이 들었을 부처님. 불전에 바치는 몇 되박 곡물일지라도 "30리 길, 찾아오느라 참 고생했다." 하시며 환한 미소로 흔쾌히 받아들였을 구족하신 부처님.

여러 자식을 객지로 떠나보내고 이 부처님 앞에 빌고 빈 사연 한두 가지였을까? 격식의 문제를 떠나 깊고 심오한 교리를 떠나 부처님은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는 존재로 가슴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소망이 자신의 욜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를 가엽게 여기고 큰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부처님. 설령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정성의 부족으로 돌리고 이 절을 찾고 또 찾았을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처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거늘, 어머니의 그 얼굴이 바로 부처였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하였으니, 교통도 좀 편하고 그럴 듯하게 모양새를 갖춘 절로 옮겨 다니시게 해야 되겠다는 내 생각을 바꾼 것은 바로 그때였다. 비록 사람들 발길 뜸한 가난한 절이면 어떠하랴. 세상 어느 곳이든 부처님은 계신 것이니, 마음 하나 바로 닦고, 내 가진 것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도리가 아닌가.

법당을 나서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싸 가지고 오셨던 그 정갈한 흰떡 몇 조각과 대추 몇 알을 받아들고 산길을 내려왔다. 내 어린 시절, 하루를 꼬박 기다리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까? 눈발은 더욱 거셌다.

신심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낱 장식물에 불과하다.



조용한 법당에 부처님의 고즈넉한 자비, 그 미소를 함빡 담아 가지는 선남자여.

바람벽에 채색된 불화에서 믿음의 새싹이 돋아나는 보살들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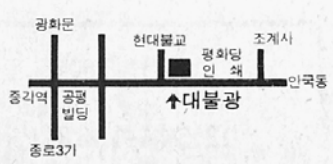
일체의 장엄구 불구에서 수천년의 신심을 함초롬히 꽃피우는 불자들이여.

이 모든 존상물, 탱화, 불구, 석물이 어찌 신불의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기저기 대량으로 제작되는 존상물의 홍수에서 우리의 믿음을 손상하게 된 적이 알마입니까. 부처님은 거룩하고, 진리는 광명하니 더 없이 높으신 생명의 자랑입니다.

전시관 개원식

4월 1일(土) 15:00~18:00



大佛光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 (02) 738-1117
FAX : (02) 738-1118

신심이 없이 조성된 불구는 한갓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존상은 흙, 나무, 돌, 쇠, 종이로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요, 그 조성에는 장인의 신심과 예술적 가피가 함께 깃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 여러 장인들이 열어 놓은 "大佛光"에 모든 불자님이 친히 왕림하시어 존상의 신앙성을 우러러 보고, 또한 장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부랑한 공덕이 함께 할 장엄불구를 조성케 하려 하오니 "大佛光"으로 나오셔서 일가견을 이룬 장인불자들과 상면하시기 바랍니다.

"大佛光"은 부처님을 열망적으로 신앙하는 순수장인들의 공동광장이며 입재나 문을 열어놓고 향사루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장 **허 길 용** 합장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7〉

永明智覺壽禪師垂誡(영명지각수선사수계) ①

學道之門 別無奇特
학도지문 별무기특
只要洗滌根塵下 無量劫來業識種子
지요세척근진하 무량겁래업식종자
汝等 但能除情念 斷絶妄緣
여등 단능소제정념 단절망연
對世間一切愛欲境界 心如木石相似
대세간일체애욕경계 심여목석상사
直敎未明道眼 自然成就淨身
직요미명도안 자연성취정신

도를 배우는 문엔 기이하고 특별한게 없다.
다만 종요로운 것은 육근·육진아래 한량없는 세월동안 익히고 쌓아온 업식의 종자를 씻어내는 일이다.
그대들은 다만 정념을 소제하고 망상인연을 끊어서
세간의 일체 애욕경계를 대하되 마음이 저 목석과 같다면 (마음에 집착을 두지 않음)
곧바로 넉넉히(능히) 도안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자연히 신·구·의 업을 맑히게 될 것이다.

若逢眞情尊師 切須勤心親近
약봉진정도사 절수근심친근
假使參而未徹 學而未成
가사참이미철 학이미성
歷在耳根 永爲道種
참으로 선지식은 사람가운데 가장 큰 인연이라
능히 중생을 교화해서 견성성불케 하나
심히 슬프도다, 말세에 헛소리하는 선객이 다만 빈 화두나 익혀서
전혀 실답게 깨친 바 없어 걸음걸음마다 유위법을 따르면서도, 말끝마다는 공도리를 말하나니
제 스스로 업력에 이끌리는 것을 자책하지는 않고 다시금(나아가) 인과는 고려할 게 없다고 가르치면서
술 마시고 고기 먹는게 보리에 장애되지 않으며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도 반야(지혜)를 방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애욕 경계를 대하되 집착을 두지않으면 자연히 몸가짐·말·정신을 맑게 할 수 있다"

역재이근 영위도종
世世 不落惡趣 生生 不失人身
세세 불락악취 생생 부실인신
纔出頭來 一聞千悟 須言道
재출두래 일문천오 수신도

만약 진정한 스승을 만나거든 모름지기 간절하고 열심으로 가까이 할지니
가사 참구해도 깨치지 못하고 배워 이루지 못할지라도 오랜동안 이곳을 단련하면(다문훈습을 말함) 길이 도의 종자가 되어
세세 생생 악취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며 겨우 머리를 내어놓으매(싹이트는 순간에) 하나를 듣고 천을 깨닫게 되리니(존오) 모름지기 믿을 지어다.

眞善知識 爲人中最大因緣
진선지식 위인중최대인연
能化衆生 得見成佛
능화중생 득견성불
深迷 末世 乖說一禪 只學皺頭
심차 말세 괴설일선 지학허두
全無實解 步步行有 口口談空
전무실해 보보행유 구구담공
自不貴業力所牽 更敎人 撥無因果
자불책업력소견 경교인 발무인과
便說飮酒食肉 不碍菩提
변설음주식육 불애보리
行盜行婬 無妨般若
행도행음 무방반야
(그리하여) 살아서는 국법의 규제와 맞닥드리고 죽어서는 아비지옥에 빠지며
지옥 업보가 다 소멸되면 또 축생·아귀계로 들어가 백천만겁에 (사람의 몸 받아)되나올 기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오로지 한 생각 돌이킨다면 그 즉시 삿됨을 뒤집어 바르게 되려니와 만약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닦지 아니하면 제불이 (그대 앞에) 출세 할지라도 또한 그대를 구할 수가 없느니라.

若割心肝 如木石相似 便可食肉
약할심간 여목석상사 변가식육
若要酒 如與屎尿相似 便可飮酒
약끼주 여끽시뇨상사 변가음주
若見端正男女 如死尸相似 便可行婬
약견단정남녀 여사시상사 변가행음
若見己財他財 如糞土相似 便可偸盜
약견기재타재 여분토상사 변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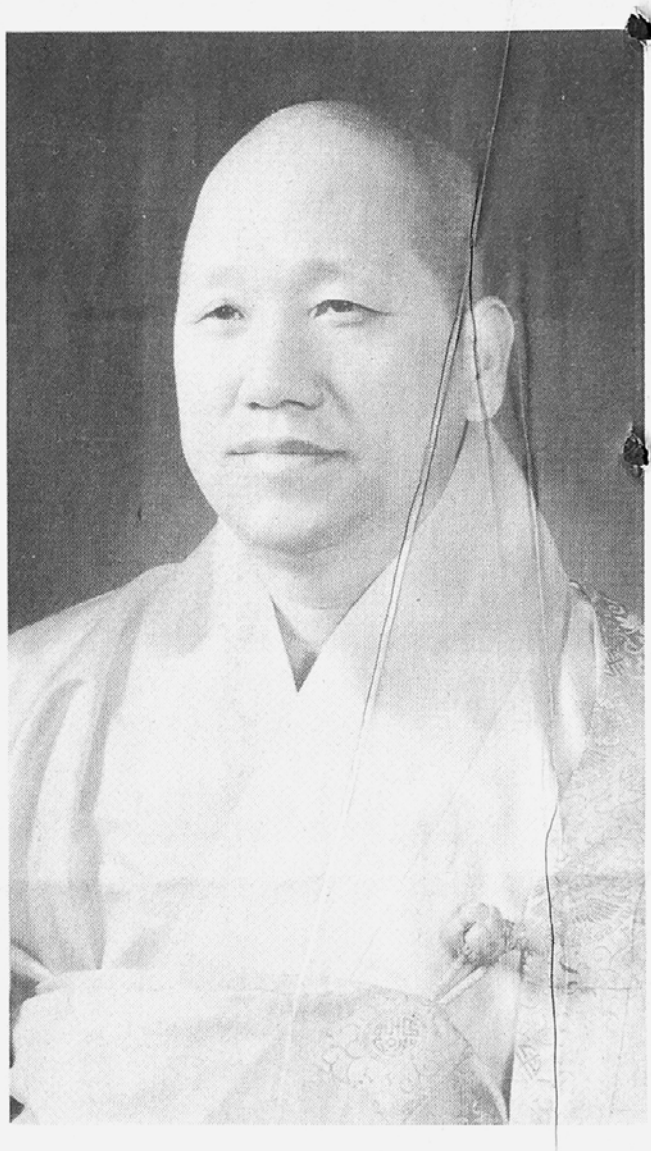
만약 (그대의) 심장과 간을 도려내어도 저 목석과 같이 걸립이 없다면 가히 고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약 술을 마시되 마치 똥·오줌같이 여겨진다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만약 잘 생긴 남녀를 보더라도 시체와 같이 본다면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만약 내 재물 남의 재물을 보더라도 똥이나 흙같이 보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둑질 해도 한 사이가 없을 것이다.)

龍 眼

★ 지상법석

사견에 빠지면 여러생 닦아도

진제 스님 〈해운정사 조실〉



약력
· 1931. 2. 21 경남 남해 生
· 52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수료
· 52년 설석우스님 은사로 득도
· 55년 자우스님 계사로 구족계
· 67년 향곡스님 법사로 임제정맥을 법통전수
· 71년 해운정사 창건
· 91~92년 선학원 이사장
· 해운정사 금모선원 등화사 금당선원 조실

대도(大道)를 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헤아릴 수 없이 광대무변하고, 거기에는 온갖 시비, 장단과 가지가지 형형색색(形形色色)의 것이 다 끊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듯 다 끊어진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증득(證得)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신심(大信心)과 하늘을 찌를 듯한 용맹심을 갖춘 이에게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과 같이 쉽거니와, 신심이 없고 정법정안(正法正眼)의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크나큰 신심을 갖추어서, 먼저 깨닫은 이가 지도하는 것을 받아들여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해 나간다면, 어려움 없이 바로 진리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견(邪見)에 빠져서 독불장군처럼 공부해 간다면, 일생을 닦고 여러 생을 닦는다 해도 아무 진취가 없는 법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모든 언어와 사량(思量), 분별(分別)이 끊어진 자리인 만큼, 그와 같은 사견(邪見)에서 진일보(進一步)해야만 무심경계(無心境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선지식 가르침 따라 그대로 행하면 무심경계 도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도의 무심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선법(禪法)을 펴려고 하시는데, 상응(相應)하는 자가 없고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림굴(少林窟)에 들어가 묵언면벽(默言面壁)하시다가, 9년 만에야 법(法)을 전해줄 그릇을 만나셨으니, 그 분이 바로 신광(神光) 스님입니다.
신광이 발심출가(發心出家)하여 대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넓은 중국 천지를 아무리 찾아 헤매었지만 도를 아는 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곳을 찾아가니,
"소림굴에 9년 동안 벽만 관(觀)해 온 한 바라문(婆羅門)이 계시는데 그 분이 아마 도를 아시는 것 같으니, 그리로 한번 찾아가 보시오."
하고 달마 대사께 인도해 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림굴을 찾아갔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인기척이 있어도 돌아보시는 바도 없고 오로지 벽만 관(觀)하고 계셨습니다.
신광이 예배를 올리고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마 대사께서는 그래도 돌아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때는 추운 겨울로, 온 산천에 눈보라가 치고 살을 에는 듯한 한풍이 불어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광이 소림굴 앞에서 합장을 하고 서 있었는데, 눈이 밤새도록 와서 허리까지 쌓였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을 정도면 보통 사람 같으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혹한입니다. 그러나 신광 스님은 그 모든 고(苦)를 능히 신심(信心)으로 극복하고, '대도의 진리를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그렇게 몸뚱이를 내던지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하룻밤 하루낮이 지나고 나서야 한 번 돌아보시고, 신광이 허리까지 눈이 쌓였는데도 합장을 하고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제서야 정면으로 돌아 앉으셔서, "그대가 어찌 왔는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고자 해서 왔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는 광대겁(廣大劫)의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부지런히 정진해서,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고 무한 고통을 이긴 가운데 성취하는 것인데, 너희같이 신심없는 무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알려면, 설사 하룻밤 하루낮을 합장한 채로 눈이 허리까지 쌓이도록 서 있었다 해도, 그만한 신심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 끝에 신광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단도를 빼서 한쪽 팔을 끊어 바쳤습니다. '신명(身命)을 내던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위대한 법을 구합니다.' 하는 발심(發心)을 표시한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만하면 됐다' 싶으신지 그 때서야 "너의 의심처가 있으면 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광이 말씀드리기를, "제 마음이 항시 불안하오니,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편하게 하여 주십시오"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신광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달마 대사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광은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불안한 마음을 찾

불교성지순례



파 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순례 9일
· 출발 : 5월 13일(단1회)
· 동참금 : 140만원
· 일정 : 서울—이슬라마바드—탁실라(자울리안 불교대학 터)—스왓(붓카라, 타킷바이)—탁티바히—페샤와르—라호르—이슬라마바드—서울

※ 대한항공 특별전세기편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협찬: 대한항공

스리랑카 6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18만원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4월 16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 · 네팔 10일
· 출발 : 4월 8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쩨—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 · 네팔 · 태국 10일
· 출발 : 4월 21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지 상 법 석

'대도의 문' 못들어 갑니다

"간절한 一念으로 진리 구하여 마음속 습기와 미혹 다 녹으면 오직 부처님 법만 뚜렷해 집니다"

을 길이 없습니다" 하니, 달마 대사께서 큰소리로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이미 편안케 하였느니라."

여기서 신광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상통(相通)이 되어 달마 대사는 신광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정안(正眼)의 지혜를 인정한다'하여 '혜가(慧可)'라는 법호(法號)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이 혜가 스님이 달마 대사의 법을 이어 동토(東土)의 전등(傳燈) 제2조가 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신명(身命)을 내던지고 간절하게 일념(一念)으로 진리를 구할 것 같으면, 다 대도(大道)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참선을 해도 안 되는 원인은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구하지 않는데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온갖 쓸데없는 궁상, 망상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결국, 허송세월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결정코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각오로 간절하게 일념으로 화두를 참구할 것 같으면, 시간이 흘러도 흐르는 줄을 모르고,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며,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것까지 잊어 버리게 됩니다. 오직 화두 한 생각뿐입니다.

그 한 생각, 화두일념(話頭一念)이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될 것 같으면 천사람 만사람이 다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자세부터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모든 반연(攀緣)을 다 끊어 버리고, 몸뚱이에 병이 있고 없고,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그러한 소소한 관심도 다 버리고 생애의 모든 생각을 오로지 화두에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고 불을래야 불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잡념은 다 끊어져 버리고, 바늘로 살을 찌르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듯이 화두가 아주 강도 있게 집중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등신 같다', '혼이 나간 사람 같다'고 할 정도로 화두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간단(間斷)없이 흐르다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하면 화두가 타파됩니다. 만사를 잊은 가운데 화두일념이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되다가 시절인연(時節因緣)이 도래하면 화두당처(話頭當處)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겨울에 소한(小寒) 대한(大寒)이 닥쳐와 살갗을 에이는 한풍(寒風)이 불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훈풍(薰風)이 불어오면, 그 흑독하던 추위는 자취조차 없어지고 훈훈한 봄바람에 만물이 생장하게 됩니다.

화두공부도 진실하게만 지어가면 이러한 자연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구하는 학인(學人)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구를 하지 않는 고로,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일념현전(一念現前)이 되지 않고 견성(見性)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화두를 뼈골에 사무치도록 챙길 것 같으면, 지겨운 것도 없고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는 가운데 결제 석 달이 어느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곳에서 선방 수좌(首座)들을 데리고 살다보면, 어떤 이들은 석 달이 지겨워서 발광을 합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앉아서 화두를 참구 한다고 해보아야 겁데기 흉내나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심수행(發心修行)으로는 백발이 되도록 해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은(施恩)만 잔뜩 지고는 죽음에 다다라서 한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 대중은, 진짜 발심(發心)을 해서 견성(見性)하기 위한 중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하루하루 밥만 축내는 중노릇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마음자세를 점검해 보고 발심(發心) 또 발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저버리고 절집에 와서 중노릇을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가지가지의 반연과 갈등은 다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거지된 것을 벗어 던지지 못할 것 같으면 이 공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금생에는 '반드시 견성(見性)하리라'는 작심(作心)을 하여 사람노릇하는 것을 포기한 채 어느 곳에서나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바보가 되어 버리면 걸음걸음 생각생각이 화두뿐입니다. 마음 가운데 화두 한 생각 뿐이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는 결제 해제에 상관이 없고, 먹고 사는 것도 관여치 않으며 자기 몸뚱이까지도 다 잊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이 흘러야 대도(大道)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필경에 대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먼저 마음자세부터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중노릇을 하나, 30년을 하나,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 그 장단이 그 장단입니다.

보살님네, 처사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 저 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맨다고 해서 복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마음의 광명을 찾는 일뿐이다.'는 절대 부동(不動)의 마음자세에서 모든 허세를 다 벗어 던지고, 모든 반연을 다 끊어 버리고, 화두를 참구하는 법을 바로 터워서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히 익혀가야 합니다.

어쨌든 가정을 가졌으니 아들 딸 뒷바라지는 해야 할 것이고 가정을 거두어야 하니, 그러한 세간살이 가운데서라도 화두를 놓치는 바 없이 간절하게 참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 가운데 모든 습기(習氣)와 허점이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몸뚱이를 지배하는 참 주인공이 있어서,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가고 오고 말하고 부르면 대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法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거두어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참으로 분하고 어리석은 노릇이 아닙니까해서 이것을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일념(一念)'에서, 뼈골에 사무치고 오장육부를 찌르는, 그러한 의심을 짓고 화두를 챙길 것 같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가 무르익어집니다. 모든 잡념은 물러가고 화두 한생각만 또렷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 오나 밥을 지으나 청소를 하나 직장일을 하나 잠을 자나,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이 것이 무엇인고' 하는 화두 한 생각만 또렷해지게 되면, 다겁다생(多劫多生)에 지어온 모든 습기(習氣)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경계가 오면 스님네도 깨달을 수 있고, 보살님네도 깨달을 수 있고, 처사님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지 않을래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어디 달세계나 천상세계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흉금 속에 본마음자리가 다 있어서, 중생의 마음자리나 천불 만조사(千佛萬祖師)의 마음자리가 터럭 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혹한 중생이 알지 못하는 고로 쓰지 못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자리를 보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들께서 베풀어놓으신 겹겹으로 쌓인 공안(公案)에 막힘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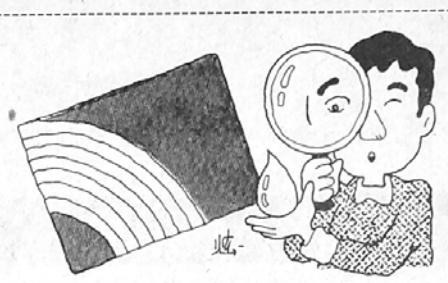
그래서 선지식(善知識)은, 참구하는 학인들이 '알았다'고 점검받으러 오면, 고인들의 공안법문을 들어서 시험해 봅니다. 이 때, 바로 깨친 이라야 동쪽을 물으면 동을 가리키고, 서쪽을 물으면 서를 가리키는 법입니다.

법문을 물었을 때, 동문서답을 하는 이는 진리의 문에 들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문답이 상통(相通)하지 않고 항시 혼돈이 되어 딴 소리를 합니다.

그러한 소견(所見)은 사견(邪見)일뿐, 이 대도(大道)의 길에는 아무런 힘이 안됩니다. 사견에 떨어져 버리면 금생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나고 날 적마다 사견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見性위해 정진하면 어느 곳에서나 스님도 보살도 처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구하는 학인은 항시 먼저 깨달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탁마(琢磨)받고 지도받아 바른 지견(知見)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만약 잘못된 사견(邪見)이 있어서 선지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놓을 줄 아는 큰 그릇이어야 대도(大道)에 가까운 인연(因緣)이 되는 법입니다. 혹여 이 대도(大道)를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마음자세에 허점이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고, 밤새 뼈골에 사무치게 화두를 참구해 보기 바랍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⑳

양 형 진

연기 즉 공

모든 존재의 나타남은 인연에 의하여 생기한다. 이를 공이라 한다.

불타는 일체의 존재가 인연에 의하여 생한다고 하였다. 이를 인연생기(因緣生起)혹은 줄여서 연기(緣起)라 하며, 이는 '모든 존재의 나타남은 인연에 의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연기설로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12지연기(十二支緣起)와 같은 교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명(無明)에 연하여 행(行)이 있고 행에 연하여 식(識)이 있고…생(生)에 연하여 노사(老死)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사가 멸하면 생이 멸하고…행이 멸하면 무명이 멸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러한 연기설은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생하므로 이것이 생한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저것이 멸하므로 이것이 멸한다'라는 생기와 지멸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르침이다.

또한 연기는 '바퀴라는 부분에 연하여 수레가 있다'라는 것에서 처럼 바퀴라는 부분등이 상호 의존하여 수레라는 명칭이 생겨난다는 소위 상의성(相依性)의 대승철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불타의 가르침은 일체 존재는 그 스스로 생겨나지 않으며 무아무실체(無我無實體)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금 잘못 해석하면 불타의 무아선이 우리의 주관적인 관념을 부정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인 인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들 주관이 갖는 실체에 대한 관념은 객관적 여러 요소에 의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며 그 스스로의 독립자존성이 없는 무아무실체적인 가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연에 의해 생기하는 객관적인 제요소는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부파불교(部派佛敎)의 상좌부(上座部) 계통에 있는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견해로서 아공법유(我空法有)혹은 인무아법유(人無我法有)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설일체유부는 여러 제요소가 삼세에 걸쳐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는 모두 실유(實有)한다는 삼세실유설(三世實有說)의 교의를 전개하였다.

이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가 지난 번에 논의하였던 무지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자. 오늘은 이 문제를 객관 세계의 본성 혹은 객관 세계의 성품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무지개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과학자는 물방울에 광선이 비치면 과장이 다른 여러 가지 빛이 어떤 각도로 다르게 굴절되고 반사되는 지를 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무지개가 이것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시각감지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만을 우리 눈은 느낄 수 있으므로 일곱 가지 빛의 무지개가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지난 번에 논의하였었다. 이렇게 무지개가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과 태양 광선, 그리고 광선이 지나는 경로에 대한 물리법칙 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을 분석한다 하여도 이 물방울에서 무지개의 본성을 발견할 수는 없게된다.

즉 이 물방울은 무지개의 성품 혹은 무지개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방울에는 무지개의 본성이 없으며, 무지개라는 현상은 여러 가지 제 요소가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게끔 조성됨으로써, 즉 인연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며 이 때 무지개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촉각의 예를 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우리가 매끄럽다고 느끼는 어떤 물질의 표면은 매끄럽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원자 배열을 본다면 그것은 설악산의 바위 능선보다도 더 요철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요소가

만물은 독립자존성이 없고 가명에 불과 매끄러운 물질 원자배열보면 요철 심해

화합하여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 물체는 부드럽다는 느낌을 주게 되며, 이로서 이 물체는 부드럽다는 명칭을 얻게 된다. 이렇듯 이러한 논의는 우리의 모든 인지 경험의 원천이 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전부 성립된다.

이와 같이 그 자체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요소가 화합하고 연기하여 나타나는 것을 공성(空性)이라 한다. 이를 용수(龍樹)보살은 중론(中論) 제24장 18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기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 공성을 가명이라고도 하며 중도라고도 한다. (衆因緣生法 我說卽是無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

용수보살은 연기와 공성의 등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연기이기 때문에 공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에서 본다면 무지개나 부드럽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요소의 화합이라는 연기에 의해 현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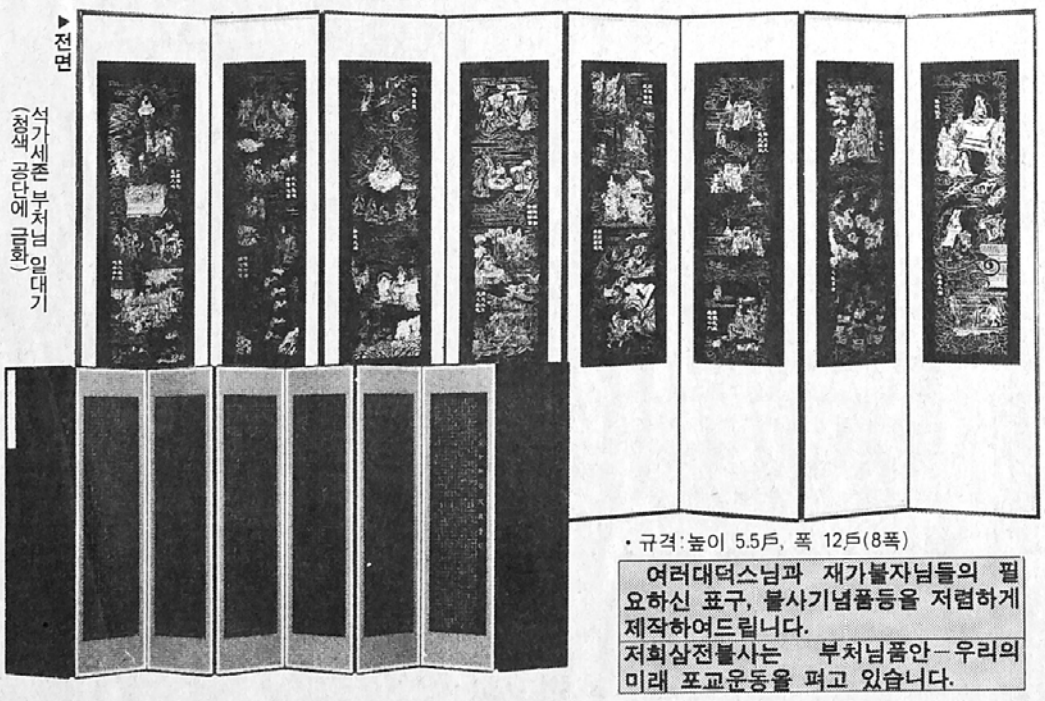
이렇듯 일체의 존재가 시간적으로는 원인의 요소에 의존하고, 공간적으로는 같이 존재하는 다른 모든 요소에 서로 의존하게 되므로 공하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상주성(常住性)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중관철학(中觀哲學)의 연기론은 곧 무상, 무아, 공, 중도의 의미를 갖게 된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 높이 5.5尺, 폭 12尺(8폭)

여러대덕스님과 재가불자님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삼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금강경

• 작품해설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畫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상-석존께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람강생상-룸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사문유관상-생노병사의 허무를 관찰하시다.
4. 유성출가상-한밤에 城을 넘어 머리를 깍고 사문이 되시다.
5. 설산수도상-설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하항마상-마왕파순의 도전을 받고 굴복을 받으시다.
7. 녹원전법상-5비구의 귀의와 녹야원 설법하시다.
8. 쌍림열반상-열반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증정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포교를 펴고자 본성품을 신청하시는 분께 백자반야달마 도자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야 달마도자기〉

특별보급가격: ₩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황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때 길을 일러 주십니다.



재가불자 성도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족자규격: 1520×520 (㎜)
• 포교가격: ₩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 포교원
■ 문의처 : 732-6096, 735-5293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고은 불교 대하소설

바람 없는 날의 계율

이번의 7일 정진은 인담의 무덤덤한 평가로도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정작 우녀는 그녀 자신부터 먼저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치열한 정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통 모르는 상태였다.

그녀도 6일째 되는 날 밤에는 한동안 지난날의 한 시절로 돌아가 예성강 하류의 갈대밭에서 한아름 하얀 갈꽃을 따서 안고 돌아오며 흥얼거리던 그때의 높은 목소리를 내게 되어 방안의 다른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과연 잠을 자지 않는 정진에서는 이런 엉뚱한 일도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튼 인담은 우녀에게 이번의 열사흘이 처음으로 시도한 정진은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태풍 속에서 구조된 무전 파현들은 숫제 꾸벅꾸벅 조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것도 썩 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우녀가 말하였다.

"스님, 이들에게 먼저 계(戒)를 주시지요. 계 없는 공부여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계를 주고 받는 일은 급한 일이 아닙니다. 더 두고 보아야지요. 남처사의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를 받고 나서야 이 심의 수행자로 자처하는 바탕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녕 그렇게 된다면… 수계(授戒)의 의례를 치러야 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

이렇게 내정된 수계식은 정작 10일이 불에 덴듯이 지난 뒤에야 실현된 것이다.

그동안 수월의 병 치레가 있어서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사람이 물에서 오래 살다가 섬과 같은 곳에 옮겨오면 그 병명(病名)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 오기전까지 수월들의 뱃길 내력도 얼마되지 않는 것이었던가.

수계식이 있기로 한 날 새벽에 사람들은 찬물로 온몸을 씻었다. 앞으로 날마다 그렇게 할 냉수마찰을 겸한 목욕재계의 첫걸음이었다.

원일로 간밤부터 바다에는 바람 한 점이 없었다. 바다 위의 파도도 파도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한 조가리도 없이 마치 커다란 거울을 눕혀 놓은 평면의 절대로 되었다.

갈매기들도 거의 다 다른 곳으로 날아가고 없었다. 우주는 이따금 이렇게 명령(命令)받은 철수를 나타내는 것인가.

"우리만 남아 있으라는 날인가보군."

이라고 만화가 바다 밑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도 물고기 자취가 통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바다의 생활 몇10년의 체험에서도 드문 일이었다.



21

오전 사시(巳時)에 접어들자마자 영락없이 종소리가 났다. 종은 섬 중턱에 있는 갈대집 정사 옆의 아주 높다란 참나무 윗부분 가지에 매달려 있고 그 아래로 노끈의 줄이 드리워져 있는데 그것을 조심스레 저으면 저 위에서 종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다.

"먼저 계를 주시지요. 계 없는 공부여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수계식이 있기로 한 날 새벽에 사람들은 찬물로 온몸을 씻었다. 날마다 할 목욕재계의 첫 걸음이었다

오른 손이 잘려나간 남처사가 종 치는 일(鐘頭)을 맡았다. 그는 겨우 손목의 통증이 없어졌으나 아직도 진흙을 이겨 붙인 것을 떼지 않고 있었다. 우녀가 그에게 시간을 알리는 종치기 일을 맡긴 것은 그의 침울한 심경을 달래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고대 인도의 원시불교에서 베풀어진 수계는 계사(戒師) 3사(三師) 이외에도 입회사(立會師) 7사(七師)가 있어야 하였다.

이를 좀더 간소화할 때 3사2증(三師二證)의 5사(五師)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국 남방의 천태종(天台宗) 원돈계(圓頓戒)에서는 석가모니 교조를 계화상(戒和尙), 문수보살을 갈마사(羯磨師) 미륵보살을 고수사(敎授師)로 삼고 시방삼세(十方三世)의 일체 여러 부처를 증사(證師)로 해서 1인의 전계사(傳戒師)로 계를 전하고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욕도의 인담은 꿈 속의 그의 스승 담인을 계의 사주(師主)로 삼고 그 자신이 10계(十戒)를 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13조(十三條)의 난(難)과 10조의 차(遮)가 있는데 난이란 악(惡)을 뜻한다. 따라서 계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총칭하는 것이다.

첫째 이전에 계를 받았는데 그 계를 범함으로써 교단에서 쫓겨난 자(犯僧罪) 둘째 계를 지닌 여자 수행자에게 음행을 한 자(犯比丘尼), 셋째 편의와 이익을 목적으로 교단에 들어오려는 사람(賊心入道) 넷째 외도(外道—다른 종교)를 버리고 내도(內道—불법)에 귀의하여 계를 받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외도로 돌아간 자(壞二道) 다섯째 남성 성 불구자(不能男—黃門) 여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오역죄(五逆罪)를 범한 자, 열한번째부터 열두번째까지는 인간이 아닌데 거짓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자(非人, 畜生), 열세째 남녀 양성의 성기를 가진 자(二形)등이 난이다.

차란 그것 차체가 악은 아니나 계에 저촉되면 안되는 것을 말한다.

계를 받는 자의 이름을 묻는 것이나 계를 받는 자가 20세가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밖에 부모의 허락을 받았는가, 부채가 없는가, 노예의 경우 주인의 승락이 있었는가, 관리의 경우 왕의 허가가 있었는가, 남자인 경우 진짜 남자인가를 묻는다.

또한 문둥병, 악성 종기의 병, 백나(白癩), 간소(乾痟) 전광(癲狂)등 다섯종류의 병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욕도의 수계식에서는 다만 10계의 내용을 일체 생명의 지중한 바를 터득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비롯해서 말하고 그것을 받아 진심으로 지켜나가겠는가를 물었다.

바다에는 파도소리 하나 없고 그들 9인의 수행자는 가장 경건한 작은 소리로 "네, 받아 지니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수계식은 오후 세시가 넘기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수계임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며 스스로 계를 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녀도 이제 출가 사미니의 계를 받음으로써 수행자가 아니라 우녀스님이었다. 남처사도 스님이 되어 새로운 법명 남각(南覺)이라고 부를 작정이었는데 남처사 스스로 그 법명이 벅차다고 사절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우녀도 마찬가지였다.

"저도 하나의 이름으로 세세생생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날 계를 받은 오후 서너시간은 아무런 작무도 손에 대지 않고 놀게 하였다. 선비 출신 불이에게 한 수의 시가 없을 수 없었던가.



그림 · 조향숙

인담은 꿈속의 스승 담인을 師主로 삼고 불살생계등 10계를 설하기 시작했다

10년동안 살아온 일들을 등불 켜 이야기하자면

반세상 헛된 공명이야 겨울 당겨 들여다 보게나

늙어 뒷사람 따라다니는 것 절로 우스워라

글 생각 벼슬 생각 둘 다 없어졌건만

十年閒活挑燈話
半世功名抱鏡看
自笑老來追後輩
文思官意一時闌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이담지의 집에 모여서 즉흥으로 지었던 임춘의 시 칠언율(七言律) 후반부였던 것이다. 그 시를 읊조리는 불이 옆에 인담이 있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임춘의 시인지 불이가 지어부르는 시인지 그 누구도 알 바 없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의 시는 흥을 더해서 다른 시 한 수도 나왔다.

꼭 무욕도와 어울리는 것도 아니었다.

향로 연기 자욱한 속에 범음이 울리는데
깊숙한 방 고요하니 상서로운 흰 기운이 난다
문밖 뻗은 길에는 남으로 북으로 가는 사람
바윗가 늙은 소나무 예나 이제나 달이 떴다
빈 원 새벽 바람에 풍경소리 울리고
작은 뜰 가을이슬에 파초가 이울었다
내가 와 고승과 한 자리에서
하룻밤 맑은 담소 값이 만금이로다

爐火燃中寅梵音
寂寥生白室沈沈
路長門外人南北
松老巖邊月古今
空說鵩鳳晩澤舌
小庭秋露取禽心
我來寄傲高僧榻
一夜淸談直萬金

그러나 이 시는 고려 임춘의 시도 아니고 지금의 김종무 아니 불이의 시도 아니다. 임춘과 한동안 그윽한 우정을 나눈 바 있는 고려의 선승 석혜문(釋惠文)의 시 「보현원」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몇백년 뒤 임춘의 후신으로 태어난 불이에게는 전혀 전생의 벗이 지은 것이었다가 마치 입을 열자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입 밖으로 읊어져 나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이 자신도 그런 시가 즉흥으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읊어 낸 것일 따름이다.

만화가 어제 깎았던 터라 반들반들한 저녁 햇빛을 받은 머리통을 돌려서 불이에게 부탁하였다.

"그 시가 참 좋게 들립니다. 한번 새겨서 자세히 풀이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사뭇 말투가 정중하였다.

불이가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 가르치는 것처럼 풀이하였다.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 끝줄의 만금(萬金) 운운하는 것이 좀 걸립니다." 라고 토를 달았다.

불이도 그 지적에 놀라며 수긍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내 생각과 똑 같으신지요. 내가 지었다 하나 나도 그 만금이란 것을 고치고 싶었지요… 궁하게나마 고친다면 푸른 바다(滄海)로 하고 싶지요."

"하룻밤 맑은 담소 값이 푸른 바다로다… 그것이 좋습니다."

"만화스님의 도(道)가 벌써 저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은 오늘 낮에 받은 계에 벌써 어긋나게 하는 것 같아서 겁이 더럭 나는 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아닌 것(不然)이나 그런 것(其然)이나 하나이겠지요."

"자 우리 말 장난은 삼가합시다"라고 만화가 불이를 내심 꾸짖는 것이었다.

파도가 슬슬 추위와 함께 일기 시작하였다.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펴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업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억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 「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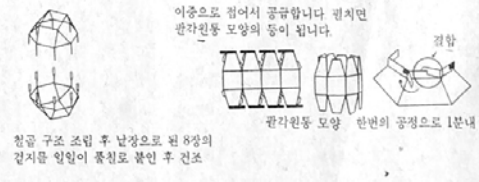


연등 초법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법응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 : (032) 613-4027~8 팩스 : (032) 665-0965

장바구니로 지구를 살립시다

불자주부 환경파수 최선

'환경모임' 창립 교육·계몽 등에 단체들 앞장
포장지 줄이기·합성세제 안쓰기 캠페인 전개

불자주부들이 환경운동에 나섰다.

'장바구니가 환경을 살립니다' 부엌에서 부터 환경을 지켜나가자는 불자주부들의 서원이 담긴 장바구니 1천여개가 지난 17일 조계사 앞에서 무료로 배포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주부 '환경모임'이 창립과 함께 봄소 실행에 옮긴 작은 환경운동의 첫발이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불자주부들이 나섰다.

시장바구니를 들어 불필요한 포장 없애기, 음식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만 장만하기, 합성세제 안쓰기, 유원지에서 쓰레기 모아 가져오기, 비닐랩과 알루미늄호일 종이 기저귀 등 1회용품도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안 쓸 수 있다는 것이 불자주부들이 생활경험을 통해 제안하는 환경수칙들이다.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본부장 윤청광)도 올해들어 환경세제 판매, 시장바구니제작 보급, 연꽃스티커 무료배포 등의 활동을 시작해 불자주부들이 생활속에서 스스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는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의 제2회 자원봉사시민대학 '환경교육'에도 많은 불자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어 환경보호와 운동에 대한 불자주부들의 열의를 짐작하게 한다. 오는 6월까지 계속되는 환경교육을 수료하고나면 불자주부들은 환경운동가로서 환경보호의 현장에서 환경전문봉사활동을 하게된다.

이와함께 또다른 환경운동의 대안으로써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 생활협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문을 열어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고 있는 수입농산물 대신 유기 농산지와 직접 연결, 우리농산물을 전시 판매해 우리농촌과 우리 환경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공해없는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어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 불자주부들이 환경운동에 임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기위해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생활 곳곳에 널려있다는 것이 이들 불자주부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이처럼 불자주부들이 각자 자기집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위해 움직이고 있어 바람직한 불교신행활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온〉

◇부엌에서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경불련 '환경모임'의 장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이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경불련 「환경모임」 운영위원장 박종애 보살



오계실천 환경운동 '만점'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계의 부처님 말씀을 환경운동으로 새롭게 깨달았다는 박종애보살.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운영위원 5명을 비롯 불자주부회원 40명과 뜻을 모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의 주부 '환경모임'을 창립하고 운영위원장의 소임을 맡으며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

"주부들만이 환경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으로 환경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는 "집안살림을 꾸리듯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불교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전개해 여성의 역할과 권위를 신장시켰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의 기복적인 신행활동에서 탈피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한 차원 높은 신행활동을 환경운동을 통해 펼쳐보이겠다는 그녀는 "성실한 환경운동으로 불교를 일반인들에게까지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지난 17일 조계사앞에서 장바구니 나눠주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 경불련 주부 '환경모임'은 앞으로 무공해 비누 제작 판매와 부산 광주 등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장바구니 캠페인을 실시해 주부들이 환경운동의 주체로 나서도록 계몽할 예정이며 1달에 1회 등산을 통해 쓰레기를 수거하며 회원들과 함께 월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찰내 환경모임과 환경학교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합성세제 안쓰기 등을 통해 생명존중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는 실천방안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신심 넘치는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살아움직이는 실천적인 환경운동을 보여주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박종애운영위원장은 보다 많은 주부불자들의 참여와 후원을 호소했다. (02)997-1642

〈이은자 기자〉

만화

法구經 법

* 어리석음의 장 *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이 향 원



이근후 건강칼럼

<20>

음식섭취

'건강식이 만병통치'라는 생각 금물…고른 섭생을

"좋다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이럴까요…." 부인은 자신의 병이 빈혈임을 강조하고 부지런히 건강식만을 해오는 데도 증상이 좋아지질 않으니 웬일인가 하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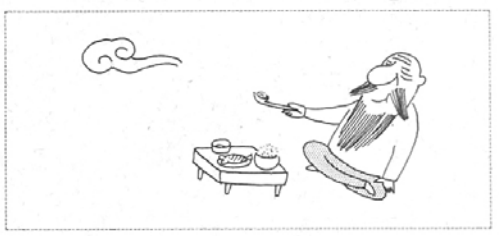
눈꺼풀을 재껴 보았다, 혈액검사는 하지 않고 가장 쉽게 빈혈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건강한 사람은 핏발이 선명하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핏기가 없거나, 심하면 파리하기까지 한다. 혈액검사를 할 것도 없이 빈혈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소위 건강식품이란 이름으로 선전도 많이 하지만 여기에 무조건 혹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 백유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소금'이라는 우화가 나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음식에 소금을 넣어 먹으니 음식맛이 좋았음으로 음식은 빼버리고 소금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하고 소금만 먹다가 병이났다는 이야기다. 건강식품도 같은 어리석음다.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한 그 부인은 되레 빈혈을 악화시켜 놓고 있다, 흔히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몸매를 유지(?) 하기 위해 다이어트라는 것을 하는데 안먹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같다. 다이어트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뜻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건강수칙 10가지 가운데 첫째를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라'는 지침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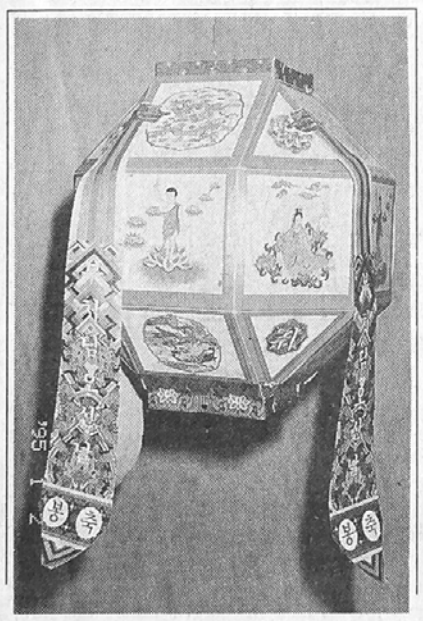
백유경의 소금을 비유한 가르침과 같은 뜻이다. 올바르게 먹기를 권장한 것은 소금이 좋다고 소금만 먹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지침이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정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일수록 건강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을 먹듯이.



홍법팔각등

풀칠이 필요 없는 팔각등



■ 조립이 편리한 등
—풀칠 없이 2분 완성
■ 전통의 단청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행사 수일 전부터 봉축 분위기 장엄
—특수 이중합지 방식
—이슬 방지 처리
■ 운반 및 보관 편리
—재사용 가능
■ 경제적인 가격
—650원 (1개당)
■ 봉축행사용품 일체
—만불기, 다라니, 연잎, 초 리본, 등표

※ 전국 어디서나 주문시 신속공급합니다.

■ 구입처 : 홍법등 판매총판
■ 전 화 : (02) 763-5214
742-0085

해동불교대학 통신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 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의식 과정

조석예불, 불공시식, 49재, 다비식에 이르기까지 완전 기초부터 통신으로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남녀 승속 불문하고 누구나 통신 수강할 수 있음.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으로 공부해도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똑같이 테이프와 통신 교재로 강의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海東佛教大學 학장 장이두 대학원장 김지견

문의처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741-0495~6 / 팩스:763-4603

교직자 양성전문교육

제1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 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모집인원 : ○○명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구비서류 : 본 대학 소정원서 사진 1매
■원서접수 : 1995년 3월15일~4월15일까지
■개강일시 : 1995년 4월17일 오후5시 정각

※본원은 초증과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뒤 허리우드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741-0495~6 FAX:763-4603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 長 張二斗
院 長 鄭大隆

'간추린 팔만대장경' 부처님 가르침 '쏙쏙'

만해스님 '불교대전' 효시

청소년·어린이용포함 15종 나와



◇ '가려뽑은 대장경'으로 불리는 책들이 경전읽기의 막막함을 덜어준다. 아울러 경전읽기는 진리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전을 읽자. 그러나 8만장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 앞에서 주저앉고 만다. 무슨 경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까 막막하다. 그래도 경전을 읽어야 한다. 부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불교성전' '불교대전'의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 경전읽기의 막막함을 덜어준다. 이들 책은 대부분 '부처님' '교리' '수행' '불자예절' 등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고 여러 경전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뽑아 어렵지 않게 진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려뽑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이들 책 가운데 효시를 이루는 한편 이후에 간행된 각종 '불교성전(경전)' 편찬의 기본틀을 제공한 것은 〈불교대전〉이다.

만해스님이 1910~1913년 사이에 통도사에 머물며 국한문 혼용제로 집필한 것으로, 1914년 범어사판으로 첫선을 보였다.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 등 444부의 경전을 인용해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도방법, 처신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서품' '교리강령품' 등 9품으로 구성하고, 각 품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경·율·논에서 초록해 실었다. 79년 이원섭씨의 번역으로 이 책을 펴낸 현암사는 가로짜기로 재편집해 5월쯤 다시 펴낼 예정이다.

내용 및 출전색인 등 가장 성실한 편집체제를 갖춰 펴낸 것으로는 동국대 역경원의 〈불교성전〉이 꼽힌다. 72년 초판 이후 지난해까지 45판을 펴내 일반인들에게도 낯익은 책이다. '부처님의 생애' '초경경전' '대승경전' '교단의 규범' '조사어록'으로 구성했다. 대한불교진흥원에서 펴낸 〈통일불교성전〉은 본연부 아함부 반야부 등 10부로 나눠 필독경전 33경을 수록했다.

〈韓英日 불교성전〉(화남출판사)은 우리글과 영어 일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이 책도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수도, 교단 등의 큰 단락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절마다 경전의 출전을 밝혔다. 아울러 불교역사와 불교성전 전래의 역사, 한국불교약사를 부록으로 실어 불교이해를 도왔다.

〈청소년불교성전〉(대한불교진흥원 펴냄)과 〈어린이불교성전〉(단이슬)은 두책 모두 한글세대가 대상인 점을 감안해 평이한 한글쓰기, 인용경전과 문헌의 해제를 실어 불교입문서로도 읽힌다. 〈어린이불교성전〉은 삽화와 함께 동화체의 문체를 사용해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전해주고 있다.

이들 책이 어디까지나 경전인 탓에 다소 딱딱함을 주고 있다면 법정스님의 〈말과 침묵〉은 수필식으로 불교의 명언들을 싣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기를 찾아라' '가정과 사회' 등의 주제아래 짤막한 경전의 인용과 뜻풀이가 자루함없이 읽게 해준다.

이밖에도 '가려뽑은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책은 〈대소승팔만장경 불교성전〉(서경보 편, 명문당) 〈불교성전〉(우리출판사, 관음, 홍법원, 명문당, 홍신문화사) 〈영한대역 불교대성전〉(호암) 아함경을 간추린 〈부처님 말씀〉(성열편, 법등)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책에만 의지해 경전을 읽어서는 안된다. 부처님말씀은 당시의 상황과 듣는 이의 마음가짐등을 고려해 행한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위의 책은 경전읽기의 입문 및 안내서로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읽는 자세도 중요하다. 이기영 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피땀흘린 수도생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기록이 경전"이라며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으로 되풀이 읽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 100선

박정호 스님의 '석림수필'

나의 30대 곧 1960년대 후반에도 불교계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불교계는 조계·태고의 재산싸움으로 영일이 없으면서 참 불자를 기르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심심찮게 '이판' '사판'의 갈등도 빚고 있었다.

나는 불교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개혁적 인물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중의 한 분이 정호스님(鼎鎬, 1870~1948)이다. 스님은 박한영(朴漢永)이란 이름으로 널리 통했고 영호·석전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스님의 처세와 행적을 추적하면서 시봉이었던 양청우스님에게서 '석전문초'를 얻어 보게 되었다.

'석전문초'는 스님의 문집이었는데, 앞 부분에 수록된 '석림수필(石林隨筆)'에 관심이 쏠렸다. 여기에는 21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잘못 전해지는 사실, 불자가 공부하는 중에 새겨야 할 일 그리고 수행에 밀접한 이야기를 요령있게 정리해 놓았다.

그 내용은 단순 명료했으나 그리 풍부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해박한 지식과 한문의 명문장으로 엮어져 있어서 해독하는 데에 무진 애를 먹었다(번역본이 없음).

여기에서 군데군데 강조된 것은 선교(禪敎)의 문제였다. 스님은 오도(悟道)를 떠들어대는 무리들을 향해 일갈했다. 화두를 잡고 염송을 읊어대면서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구두선이나 뇌까리는 풍조를 개탄했다. 더욱이 권문세가에 붙어 명망이나 낚으며 고승을 자처하는 시대를 한탄했다.

특히 '불입문자'는 조사의 친언이 아니요, 몰식배가 호신부로 삼고 있다고 매도했다. 그러니 선과 교는 편견을 버리고 원묘를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날 "선을 말하는 자는 한 점 융통성없이 삐쩍 마른 나무나 타버린 재를 지키며 내가 성인이라고 떠들고, 강을 말하는 자는 경문을 쳐박아 두고는 미친듯이 다른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통한해 했다.

이것이 바로 의상과 보조가 추구했던 바가 아닌가? 그리고 광혜(狂慧) 치선(痴禪)의 폐해가 아니겠는가? 스님도 식민지시대 현실의 모순을 겪으면서 당시 해묵은 대립과 갈등을 몰소 겪으며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고민한 모습이다.

스님을 학승이라고 했지만 선문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스님은 이름난 강백으로 평생 뭇제자를 기르는 데 전심하여 개운사에 강원을 열었고 불교전문학교의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친일 불교에 맞서 싸웠다. 그가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지 않았으나 결코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다. 스님은 불교전문학교(현 동국대)와 개운사를 걸어서 출퇴근 하였는데 그 중간에 창신과출소가 있다. 일본 순사들 앞에다 똥을 한 무더기씩 싸놓고 가버린다.

스님은 지 백파(白坡)의 법손이었고 당시의 명사 이기(李沂)와 최남선을 친구 또는 제자로 두었다. 그러면서 늘 온화하고 겸손한 봄가짐을 지녔다. 그리고 불사를 일으키고 제자를 기르는 일 이외에는 번잡한 세상사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스님을 통해 참 불자의 모습을 찾아 불교개혁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석림수필'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다 하겠다. 이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건 참 불자가 요구된다.



이 이 화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편견벗고 원묘찾는 禪敎 강조

수행자의 자세 명료하게 밝혀

'홍명집' '명구론' 등 불교서 6종 포함 동·서양 고전 2백종 번역출판 추진

한길사, 1백억원 투입 CD롬도 제작

불교의 명저작들을 포함한 동서양 고전 2백종이 한길사에 의해 '그레이트북스' 시리즈로 새롭게 번역, 출판된다. 그동안 이들 책은 한글번역이 없었거나, 일·영어의 중역이어서 대부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백종 가운데 불서는 〈육조단경〉〈명구론〉〈홍명집〉등 6종이며, 목록 및 역자는 다음과 같다 △육조단경(혜능):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명구론(名句論):이태승(동국대강사·불교학) △금강삼매경론(원효):최유진(경남대교수·철학) △의천문집:추만호(우리불교문화연구소장) △수심결(지눌):강건기(전북대교수·철학) △홍명집(弘明集):신규탁(연세대교수·철학)

이 가운데 〈홍명집〉은 중국의 불교전래 초기 불교와 중국 전통사상과의 충돌상황에서 배불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승우(僧祐)가 찬술한 것으로, 국내 초역이다.

한길사는 이 시리즈를 단순한 자구(字句)풀이식 번역에 그치지 않고 고전이 독자에 널리 읽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상세한 해설과 역자주석, 사진 등 시각자료를 수록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구·해설서로 꾸밀 계획이다. 이를 위해 6년에 걸쳐 1백억원을 투입해 양장본 문고본 CD-롬으로 제작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금강경 강의	무 비	불일출판사
2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3	화엄경	무 비	민 족 사
4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 의 범	시 공 사
5	열반의 별빛	석 용 산	문학수첩
6	마라래빠	에반스웬츠	고려원미디어
7	바보가 되거라	경 봉	효 림
8	서울 – 전통사찰	최원식 외	사찰문화연구원
9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교보문고
10	붓다의 호흡과 명상	정 태 혁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불심으로 쓴 태교일기 내달 출간

설법연구원 이혜옥씨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야'

'거룩하신 부처님, 지난 세월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을 엎드려 참회하고 참회하나니 아름다운 아기와 만날 수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뱃속의 아기와의 대화를 일기와 시 그림으로 엮은 태교일기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야〉가 다음달초 도서출판 솔바람에서 나온다. 지은이는 설법연구원 편집부장 이혜옥씨.

태교 또는 육아일기는 여러종 있었으나 당사자인 예비엄마가 직접 쓴 태교일기가 책으로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의 태교일기에는 불자로서의 신심이 가득하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부처님/이제 한호흡을 하노니/ 고운 아기의 건강한 울음소리를 주소서…한 몸이 한 법계임을 어이 모르겠습니까.' 글의 곳곳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대한 고마움과 발원, 불자로서의 자신을 다져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새로나온 책

▲관음경(운오연 편저)=솔바람 경전시리즈 첫째권으로 한역경전의 우리말 풀이와 해설을 곁들여 경전을 풀이했다. 경전의 자구풀이에 그치지 않고 '삼독의 재난에서 벗어나자' '믿음의 공덕' 등 경전의 가르침에 주제를 붙여 법문하듯 쉽게 서술했다.

〈솔바람, 3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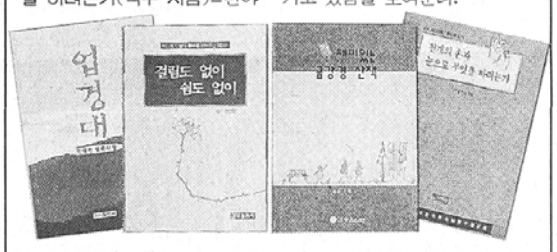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석우 지음)=반야정사 교리법회에서 행한 강의원고를 중심으로 엮은 천수경 해설. 불교의 기본예절과 불·법·승 삼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불교입문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관음손, 6천5백원〉

▲업경대(지자경 지음)=현재 미국의 록키산중에 칩거하며 미래세의 종교와 인간세계에 대한 명상과 집필활동에만 전념하는 저자의 에세이집. '지옥의 실상' 등 50여편의 글을 통해 사람들이 행한 결과는 지옥과 업보로 항상 되돌아옴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출판사, 5천6백원〉

▲걸림도 없이 쉼도 없이(권영일 지음)=지은이가 틈틈이 써온 사찰법회의 법문과 수필, 신문에 발표한 글을 한데 묶었다. 독실한 불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교집안의 일과 일상사의 여러문제를 붓다의 가르침에 의지해 풀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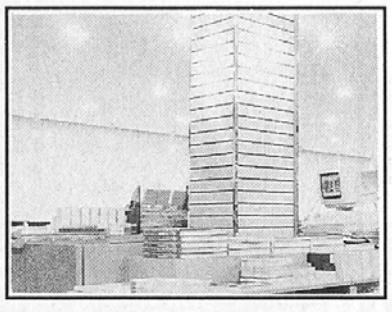
〈감로출판사, 비매품〉

▲금강경 산책(우학 지음)=금강경 가운데 능정업장분 구경무아분 등 주요부분 17분을 뽑아 본문과 용어해설 강론의 순서로 풀이했다. 각 장 끝에는 경전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이야기를 실어 경전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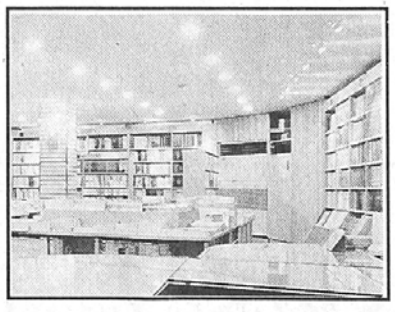
〈좋은인연, 5천6백원〉

불을가득·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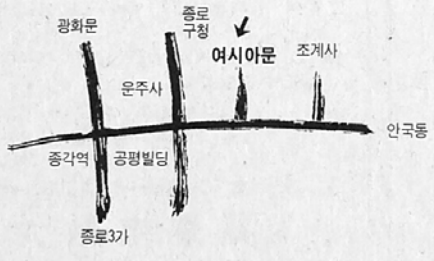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32, 59,84,159,331,588-2번

만개의 燈·꽃 공양 부처님 오신 뜻 찬탄

연화플라워 내달22일 문화체육관서



◇연화플라워 회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만등만화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92년 조계사 앞뜰에서의 꽃공양 모습.

꽃꽂이·음악·무용·전통 화혼예식등 '볼만'

1만명의 불자와 1만개의 등, 1만 송이의 꽃이 한데 어우러져 부처님 탄생을 예경하는 장엄한 화장세계(華藏世界)를 이룬다.

연화플라워와 연화정사가 주최하고, 문수회, 월간 담이 주관하는 「만등만화공양법회」가 4월22일 오후3시 MBC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다채 화엄의 세계를 연상케 할 이번 행사는 불교 꽃꽂이의 정수와 음악, 무용등 각종 불교 전통의식이 총망라된 대형무대로, 행사장 자체가 하나의 형형한 빛을 발하는 법계를 이룰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회의 정명스님과 보명스님이 꽃꽂이를 시현, 화반을 불전에 올리고 30명의 꽃꽂이 회원이 미리 준비한 불전화를 올리는 의식이 정갈한 동작으로 전개된다. 이어 참석한 사부대중이 꽃으로 장엄한 만다라화와 오단화에 탄생불을 봉안,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또 잔잔한 어둠속에서의 타종에 이어 오조장삼을 갖춘 스님과 천동·천녀로 임준상, 윤미라씨가 분해 탄생 관욕 의식도 선보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선혜선인의 7경화' 설화를 근거로 한 헌화의식의 재현과 고구려 씽영총 벽화, 고려불화의 수반화(水盤花), 불정심다라니경에 있는 헌화공양 관화등을 통한 역사상의 불전공화(佛前供花)가 시현된다. 따라서 이 행사는 불전공양 의식의 역사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7경화'에서 연유해 지금도 불교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릴때 신랑이5송이, 신부가 2송이의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화혼 예식도 시현된다.

젊은 비구니스님의 모임 문수회 회장 정명스님은 "「만등만화공양법회」는 옛부터 전해오는 육법공양을 현대인의 문화감각에 맞게 의식화(儀式化)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고 말했다.

육법공양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범패와 작법(춤)이 함께 펼쳐지는 「만등만화공양법회」는 불교의식의 정립과 불교문화 창달에 한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필선기자〉

불교미술 '한자리에'

상설전시관 '대불광' 내달1일 개관

불교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대불광(大佛光)'이 4월1일 문을 연다.

현재 활동중인 불교 미술작가중 권위 있는 작가들의 역작만을 엄선해 상설 전시하는 '대불광'에서는 불상, 탱화, 석조물, 법상, 사리함등 다양한 부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간 불교 미술품에 대한 감상의 기회는 작가들의 작품전이나 개인적 교류에 한정됐던 것이 사실. 때문에 '대불광'의 개관을 계기로 불교미술 작가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관람자들의 감상의 기회 확대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되는 작품의 80% 이상이 문화재보존 기능인 또는 불미전 입상자의 작품이어서 '대불광'은 불교미술의 현주소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다. 개관시에는 20여명의 작품이 전시되지만 역량있는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을 계속 늘려 전시할 계획이다.

또 '대불광'은 감상자와 작가들이 수시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도 공개된다.

관장 허길룡씨(조각)는 "이곳은 교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불교미술 전문갤러리입니다. 오늘의 불교 미술을 이끌어 가는 책임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함으로 불교미술의 영역과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전시장 개관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불광'의 개관식은 1일 오후3시에 거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목정배교수가 축하강연을 한다.

〈문의=738-1117〉



◇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대불광 전시실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표정, 밝은 행동은 안팎으로 우리의 삶에 부처님을 출현케 하지요. 웃으며 사는 것은 부처님을 중심에 맞이하게 해 365일 부처님을 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호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웃으며 삽시다' 운동요원이다. 관음사나 호작실로 전화, 편지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 터 뷰

호작실 홍미경 불자

밝은 마음 가꾸는 일 '큰 불사'

'웃으며 삽시다' 엽서 나눠주기 1년

친견하게 합니다."

1년전부터 '밝게 삽시다', '웃으며 삽시다' 운동을 벌이며 온세상에 부처님의 광명을 나눠주고 있는 호작실(好作室) 주인 홍미경씨의 말이다.

밝은 삶은 웃음이 있는 삶이다. 엽서 크기의 캔트지에 주황색 크레용으로 활짝 웃는 햇님(비로자나 부처님을 의미)을 그려서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홍씨. 그녀는 부처님뿐 아니라 웃음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호작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웃으며 삽시다' 운동요원이다. 관음사나 호작실로 전화, 편지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불사(佛事)중의 큰 불사는 밝은 마음 가꾸는 일입니다. 밝아지려면 먼저 활짝 웃어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기뻐지고 만사가 좋아집니다. 언제나 방글방글 웃는 것으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집니다. 웃으며 삽시다."

대구 관음사(주지 원명)도 홍씨의 '웃으며 삽시다' 운동에 동의, 〈관음회보〉를 통해 이같은 취지를 알리고 있다.

양양 선림원사지 도로건설로 훼손

보물급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선림원사지가 불법건축물과 도로개설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도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선림원사지에는 선림원지 3층석탑(보물 444호), 선림원지 석등(보물 445호), 홍각선사탑비(보물 446회), 선림원지부도(보물 447호) 등 보물급 문화재 4점이 보존돼 있다.

그러나 절터는 지난 50년대 6평규모의 녀와집이 불법으로 지어진뒤 무속인들에 의해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

군관계자는 "선림원지 석축에 대한 설계가 끝나는대로 4천만원을 들여 보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움직이는 박물관 전국 순회 전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운영하는 '움직이는 박물관'이 24일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전시에 들어갔다.

'선사인의 돌문화' '유적발굴 사진전' '만화로 보는 박물관' 등의 전시주제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생활도구 65점을 비롯해 문화 만화패널, 유적발굴사진 등이 전시된다.

총회 · 심사위원 회의

청소년문화진흥회, 8일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제69차 총회및 심사위원회를 4월8일 오후5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진흥회는 제13회 불교아동문학상과 4회 찬불가요가사 제2회 불교아동문학상 신인상등을 심사하고 지난해 보급된 불교청소년 도서및 음반 심의를 한다.

불교음악 특별공연

KBS, 4월8일

KBS국악관현악단이 꾸미는 '종교음악의 밤-불교' 특별연주회가 4월12일 오후 8시 KBS홀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승무' '탑돌이' '아제아제' 등 불교음악이 공연된다.

박상진(동국대)교수가 지휘한다.

이석조 화가 7년만에 개인전

30일까지 청담동 한국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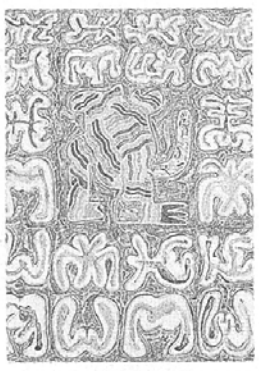
'만다라'의 화가 이석조씨가 7년만에 개인전을 열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청담동 한국갤러리에서 열리는 이석조의 '소리'전은 7년이란 기간 동안에 화가의 번모된 그림세계를 보는 좋은 기회. 이씨는 만다라화의 전형을 새로운 시각과 화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다라화의 정교함을 단순미로 대치시키고 법계의 삼라만상을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등이 이씨의 만다라가 갖는 특징. 또 각 작품마다 불혀진 제목이 마치 화두를 깨뜨린 직후에 내뱉는 외침같아 감상자의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한다.

또한 만다라화에 대한 전형적 인식의 벽을 깨뜨린 이씨의 작품은 철저한 인간의식의 탐구와 맑은 정서의 표출이 조화롭게 부여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림은 무성(無聲)의 언어입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교감하는 그림을 통해 저는 문명의 원형질을 찾아 보고자 했습니다. 불화가 갖는 풍부한 소재와 상상력은 기계문명을 극복하는 정신문명의 기초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유년에서 청년시절까지를 절에서 보냈던 이씨는 앞으로도 독특한 만다라의 경지를 개척하며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도 전시를 가질 계획이다.



◇ 이석조 작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가볼만한 전시회

이상범 시인 회갑 시화전

내달 5일~11일 인사갤러리

중견 시인 이상범씨가 화갑을 맞아 시화집 '오두막집行'을 내고 소품전을 갖는다.

이 시인의 시화집은 자연과 삶의 정서를 불교적 시각으로 그려낸 시와 그의 소품(나이브페인팅)으로 구성됐다. 시화집의 특징은 묘사된 현장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 즉 이 시인은 동학의 현장, 연해주 지역, 소외된 농촌등을 기행하며 그곳에서 얻은 영감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해 한권의 시화집을 묶은 것이다. 이 시인의 열번째 시집이 〈고요시범〉 이후의 신작들을 묶은 것인데 독자 두번째 화집인 '오두막집行'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언어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 그림으로 표현함으로 독자와의 거리를 한쪽 좁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때로 시의 혼을 떼어 그림에게 얹어주고 가다가는 그림의 살을 떼어 시에게 목숨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하게 한 셈입니다. 재작년에 낸 자들의 가슴 속에 파고 들고 싶다는 시적 혹은 화가적 욕심이 낳은 결과라 생각 합니다"

이 시인은 사물에 대한 시적 관찰을 그림과 함께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화집에 수록된 그림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삶의 시적 소묘'란 주제로 4월5일부터 11일까지 인사동 인사갤러리에서 전시된다.



◇ 이상범시인의 시화집 '오두막집 行'에 실린 '요사채'

"죽음의 두려움 벗고자 지옥계불화 다량 제작"

원광대 김정희교수 '영·정조 미술'연구

조선 중기 영·정조시대에 지옥계불화가 성행을 이룬 까닭은 무엇일까.

왜란과 호란의 대전란을 치루고 난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서 명부신앙이 중요한 민간신앙으로 성행하고 지장보살도, 시왕도(十王圖), 감로왕도(甘露王圖) 등의 지옥계불화가 전시대에 비해 다량으로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8일 오후2시 동국대박물관서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주최, '영·정조 시대의 미술'이란 주제의 발표회서 원광대 김정희교수(고고미술사학과)가 제기한 것.

당시 불화의 구도에 있어서는 고려나 조선전기까지도 일부 나타나던 이단구도(二段構圖)는 완전히 사라지고 중앙의 커다란 본존을 주위 권속들이 빽빽히 둘러싸는 군도(群圖)형식이 자리잡게 되었고, 채색은 녹색과 적색을 주조색으로 하여 다양한 채색으로서 부처님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장엄했다. 형태는 꼼꼼하면서도 화려한 묘사가 극치를 이루었고, 이런 특징은 지역별 화파별로 다양한 도상(圖像)으로 전개됐다는 것이 김교수의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인생 상담)
따뜻한 가정 (교리 상담)
구룡사 부설 인생 상담

여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759-3033~6

인 사 장

먼저 삼보님께 귀의하옵니다.

지난 6년간 '리 선행' 법사님이 이끌어 오셨던 「수미산 여행사」를 1995년 4월 1일부로 덕 없는 소납이 맡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부대중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큰 발전을 보았습니다만 더 많은 지도와 이용을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수미산 여행사」는 해외 여행업 허가뿐이어서 국내 여행을 못해 왔습니다만 이제 국내 여행업 허가를 득해 명실공히 '국내와 해외여행'의 모든 서비스를 사부대중의 요구에 따라 충실하게 심부름을 할 자세로 모든 직원이 대기중에 있사오니 국내외의 성지순례, 기도처 순방, 방생법회 등과 사찰수련회 및 국내외 항공권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부하는 모임인 「진여회」는 제1기 '금강경' 강의를 끝내고 제2기 '원각경' 강의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불교의 기초교리를 공부하려 하오니 불자이면서 자칫 지나쳐버렸던 작은 상식들을 이번 기회에 꼭 배우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기 2539년 4월

수 미 산 여 행 사

대한불교조계종 진 여 회 • 회장 무기 박 진 성
임직원 일동 합장

희 소 식

함평 해수 약찜

바닷물, 유황성분의 돌, 약쑥의 복합적 효능

저희 함평 해수 약찜은 80여년 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널리 이용되어온 신비한 치료법입니다. 소나무로 달군 유황 성분의 돌을 약쑥과 솔잎을 넣은 바닷물에 넣어 물을 덥힌 후, 심하게 아픈 곳을 찜질하고 약탕을 함으로써 산후풍과 팔, 다리 쑤시고 아픈 데 큰 효과를 보아 왔습니다. 그곳에 현대식 탕을 새롭게 만들어 더 많은 분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였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효능
■ 알레르기성 피부병 ■ 비만
■ 관절염, 류머치스 ■ 악성 무좀
■ 피부 미용 등 ■ 비듬
■ 허리,팔,다리 쑤시는데

■ 약찜에서 머물실 분

약찜은 1탕에 18,000원, 약쑥 2,000원 계 20,000원(4인 1탕시 5,000원)이며 식사는 한끼에 3,500원이지만 주방 시설이 되어 있어 밥을 지을 수 있으며, 숙박비용은 2인까지 1일 1만원, 3인부터 8인까지는 1일 2만원입니다.

진여회와 수미산 관광에서는 4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출발하여 일요일 저녁 서울에 도착하는 정기코스의 차량을 운행합니다.

동 참 금 : 50,000원(약탕 3회-4인 1탕, 식사 3회, 왕복교통비 포함)
출발장소 : 조계사 앞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TEL : 02) 732-0181~3

수미산 여행사

국내부 창설 기념 행사

해인사 정대불사 및 조상 천도재(1박 2일)

• 4월 8일(음력 3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출발
익일 오후 3시 도착 예정
• 동 참 금 : 25,000원(3식 및 교통비 포함)
• 출발장소 : 조계사 앞
• 경 유 지 : 반포 뉴코아 신관 주차장 앞 오전 6시 40분
※ 해인사 정대불사금 30,000원 및 영가 천도 1위당 10,000원은 별도

선찰대본사 범어사 보살계(2박 3일)

• 4월 12일(음력 3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출발
4월 14일(금요일) 오후 4시 30분 도착 예정
• 동 참 금 : 30,000원(교통비, 입장료, 2박 5식 포함)
출발일 중식 및 도착일 중식은 별도
• 출발장소 : 조계사 앞
• 경 유 지 : 반포 뉴코아 신관 주차장 앞 오전 6시 40분
※ 보살계 동참금은 30,000원이며 별도입니다.

▶ 예약 및 문의 : 732-0181~3

인터뷰



방송 2백회 '거룩한 만남' 진행 정목스님

"연꽃피우는 불사·3천불자에 감사"

"거룩한 만남은 사바의 진흙속에 피어나는 연꽃입니다."

지난 26일 2백회 기념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불교방송 사회봉사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진행자 정목스님.

91년 4월5일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방송에 입문한 정목스님은 '거룩한 만남'을 불교방송의 간판급 프로로 키워오며 따뜻한 나눔의 방송을 만들었다.

매회 성금을 보내주는 등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3천여 불자들을 생각할 때 마다 의무감, 책임감을 느낀다고.

'거룩한 만남'은 한 회 방송을 위해 오신희 보살등 11명의 자원봉사자와 리포터 교통통신원이 도움을 줄 대상을 선정하여 방송하고,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성금전달과 함께 정목스님의 격려도 곁들어져 힘과 용기를 준다.

"우리의 육신이 멸절하여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현세 극락"이라는 스님은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가치있게 한다고 말한다.

4년간 2백여 세대와 중·고·대학생 6백여명에게 도움을 준 '거룩한 만남'은 사회복지 차원으로까지 발전하여 제작팀의 더많은 수고와 원력을 필요로 하고있다.

"반인륜적인 사건이 끊일 없이 발생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볼 때 절망감에 앞서 돕는다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정목스님은 '부처나라 세우기를 원하는자 중생속에 세우라'는 유마경의 한 귀절을 모든불자들의 가슴에 새기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방송가 단신

'개국고불식' 비디오로
영상사업부, 복제실도 마련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부장 이원덕)는 한국의 명찰 표충사와 개국고불식 비디오 테잎을 지난 28일 출시했다.

또 불교텔레비전은 방송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복제실을 7층 응접실에 마련했다.

뉴스 업무 상호지원
부산BBS·부산일보

불교부산방송은 부산일보사와 지난 20일 뉴스제휴및 업무상호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매일 오후7시 불교부산방송 종합뉴스시간에 부산일보 뉴스가 보도되고 불교방송 주요프로그램이 부산일보 방송프로그램 안내란에 게재된다.

등록금 전액 지원
한마음선원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은 지난 14일 불교텔레비전의 자비봉사프로 '자비의 천수천안' 2회에 방송된 학업중단 위기의 일상민(건국대 2년)군에게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송성일 선수 49재 봉행

작년 10월에 열렸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영웅 송성일 선수(레슬링)의 49재가 지난 18일 수원 용주사에서 봉행돼 가족과 동료 선수들이 송선수의 명복을 빌었다.

한국불교 자비 지구촌으로…

캄보디아 난민·미얀마·인도 돕기 불자 적극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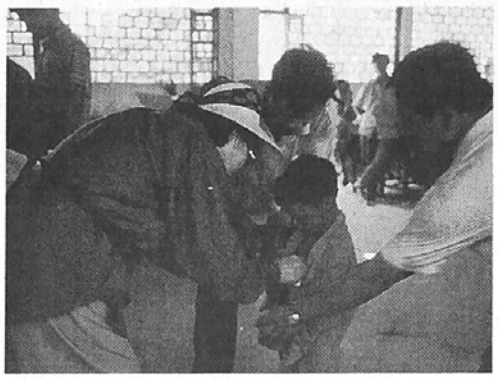
'우리는 선우' '기아도움기구' '나를 태워…' 등 앞장

"인류가 안고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세계적으로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불자들의 자비손길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선우(02-278-8672) 공동대표 남지심씨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텝퐁 승정(종교성 장관)을 예방, 캄보디아 승단 교육 지원 및 난민돕기를 약속하고 귀국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번째 캄보디아를 방문한 남지심씨는 프롬펜에서 1백km 떨어진 캄퐁의 고아원에 학용품등을 전달하고 자가발전시설과 지하수개발, 자립을 위해 가축 2백마리를 전달했다.

남씨는 "폴포트가 지식인을 학살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스님들이 피해를 보아 캄보디아 불교가 공황상태다"며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미래를 위해 스님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남지심씨는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퐁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재 캄보디아의 교육은 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만명의 스님과 일반인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들의 1달 학비는 1인당 2만원으로 우리는 선우는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는 선우는 사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미얀마에도 승려의 학비보조를 위해 매달 1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불자들의 세계를 향한 자비 손길은 사회봉사에 미흡하다는 불교계의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새로운 신행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자비의 세계화를 펼치는 불교계의 대표적 단체로는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02-722-0408)가 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불교기아기구는 '생명방생 자비의 종' 저금통을 제작, 전국 사찰과 종립학교에 보급했다. 이 저금통은 범종형태로 기아 한 가족(7인)을 한달간 살릴수 있는 것으로 서울신탁은행 전국 지점망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이홍재. 02-725-7932)'의 회원 1백40여명도 인도고아 1백여명을 고정적으로 돕고있다. 특히 나빛사는 인도고아들의 자립을 위해 캘커타 인근에 향료, 식료품공장등을 세워주는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은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02-522-2841)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정토회 국제사업부는 인도 부다가야 두르가푸르 마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설립했으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룸비니에 싯달타학교, 쿠시나가라에 춘다병원,바이샬리에 암라팔리여학교, 상카시아에 마야양노원건립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도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 02-395-2571)는 중국연변동포들에게 '장농속의 옷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사장·관련자 퇴임 촉구

불방 대책위·전승련

조계종 불교방송 대책위원회(위원장 시현스님)와 전승련은 지난 21일과 22일 방송사태에 대한 사장의 용퇴와 관련자 해임조치를 재촉구하는 공식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에앞서 조계종은 지난 20일 총무원, 종회특위, 불교방송 이사회 연석간담회를 열고 방송활성화 대책과 사건의 논의구조를 결집키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불교방송 인사위원회(위원장 강한필 전무)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편성제작국 김재진 국장을 직위해제, 김정학 유병직 차장 감급 2개월, 이영준 하헌목PD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수륙영산 대법회

태고종 27일부터 3일간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은 지난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 평택호 국민관광단지(구아산만)에서 '환경보존실천을 위한 수륙영산대법회'를 거행했다.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 전국 각종무원 스님 신도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법회에서 총무원장스님은 "물고기류의 방생법회를 점진적으로 지양하는 한편 7천만 계레가 하나되어 세계화 및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불교도가 앞장서서 계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보살수계산림 법회

4월15일, 대구실내체육관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은 4월 15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미얀마고승초청 국제보살대계 및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는 종정스님을 비롯 각 교구 종무원과 신도들의 동참할 예정이다.

종정·원로위원 임기 5년으로

법륜종, 종헌종법 개정

한국불교 법륜종(총무원장 석일화)는 지난 17일 제9회 임시중앙종회를 갖고 종헌종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된 종헌종법내용을 살펴보면 △감귤색의 장삼을 황금색(대종사·종사) 황색(대덕·중덕·선덕·사미·사미니) △종정·원로위원의 임기를 7년에서 5년△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의 임기를 5년에서 4년 △사미(니)계의 수계도 종단의 공인계단에서 단일계단으로 확정하는등 전반적인 종헌종법을 개정했다.

18명에게 장학금

법인사 법인장학회

태고종 정주 법인사 법인장학회(회장 조계종)는 지난 25일 법인사에서 제10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신심이 돈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8명에게 총8백만원을 지급했다. 법인장학회는 86년 설립, 지금까지 총9회에 걸쳐 2백68명에게 4천6백3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관음전 기공식 봉행

천태종 진주 월경사

천태종 진주 월경사(주지 남월주)는 지난 23일 김도용 종정스님 및 1천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음전 기공식을 봉행했다.

신도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관음전불사는 약1천7백여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유치원 종무소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98년 개원할 예정이다.

동방대 후원회 조직

태고종, 정규대 승격 목적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정규대학 승격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했다.

최혜초부원장 및 정대은 부학장을 중심으로 하는 후원회는 교수 초빙, 장학제도 확충등을 위해 각 종무원을 비롯 동문회와 연계 후원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대은 부학장은 "종단과 불교계를 이끌어갈 선두주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불교관광에 나선 태국의 스님들이 지난 1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법회를 갖고 불상과 불경을 전달했다.

태국스님·불자, 한국불교 순례

관광공사 유치…불국사·동국대 정각원등 순례

대규모 태국 관광단이 한국의 불교를 만나러 온다.

한국관광공사(사장 김태연)는 불교를 주제로한 관광코스를 상품화, 태국 관광단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되는 한국불교 관광은 태국의 스님과 시인들이 매우 호감을 보여 매월 1백20명 이상의 관광단이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스님과 불자로 구성된 2백58명의 관광객이 이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 경주 불국사와 동국대 정각원 등을 순례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특히 관광 방문도중 불국사와 정각원에서 한국불자와 공동으로 예불의식도 가졌다. 이 의식에서 태국 스님들은 미리 준비해 온 경전 80권과 불상 등을 불국사와 정각원에 각각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태국 관광단의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국사뿐만 아니라 양산 통도사 등 유명 사찰을 연결하는 코스를 새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태국 관광단 유치 실무를 맡은 두두관광에 따르면 태국 관광단은 4월에 1백20명을 비롯 5월과 6월에도 1백20명씩을 유치할 계획이며 태국의 안거기간인 7,8월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대규모 관광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여주신륵사 탐방

한국의 명찰(27일 11:10~12:00) 경기도 여주 봉미산 기슭에 있는 용주사의 말사 신륵사.

신라 원효스님의 창건이야기와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는 설과 인당대사가 신력으로 용마를 제압했다는 전설이 깃든 신륵사를 탐방해본다.

개혁1년 평가·전망

특별좌담 개혁불사 어디까지 왔나(29일 11:10~12:00) 한국불교 1600년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약의 계기를 가져온 개혁불사 1주년을 맞아 1년간의 개혁과정을 회고해 보고 종합적 평가와 전망을 성태용교수의 진행으로 명진스님, 효림스님 류승무교수가 출연하여 대담한다.

신장 공양한 정옥련 보살

자비의 천수천안(28일 11:10~12:00) 만성신부전증 환자 이낙형씨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준 정옥련(근수행) 보살의 보살행을 통해 생명공양의 참정신을 되새겨보고 장기공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최방자보살, 박승구씨, 박진우어린이의 절박한 사정을 소개한다.

석불사와 불광사 대결

퀴즈특급! 이뭐꼬!(31일 11:10~12:00) 마포 석불사와 송파구 불광사가 새로운 승자를 탄생시키기 위해 불꽃 대결을 펼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용성스님 55주기 추모

리디오 법회(26일 10:05~11:00) 대각사에서 봉행되는 용성스님의 55주기 추모법회를 방송한다.

70년대 그룹사운드 총점검

백팔가요 일요스페셜(26일 12:10~13:55) 음악의 뿌리가 되는 그룹사운드 음악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는 시간.

70년대 인기를 한데모은 키보이스 김흥탁씨가 출연, 70년대 그룹사운드 음악을 총점검한다.

'불교와 음악'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27일 11:05~11:20) 불교와 음악을 주제로 박범훈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

강의내용은 범패를 통한 불교음악의 정의와 유래, 인도음악과 불교고전음악, 수행과 염불, 불교의식과 음악, 불교음악의 심리적 효과등.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조문객 -접대음식- 육개장·대구탕 外 콩어회·전유어·북어찜 등 이조 924-9211 과방 925-4961 소모품 제공: 봉사요원 파견

연꽃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배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추만)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불서 출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30-9372~3 ·FAX (02) 723-0646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금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찬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찬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창청음 별도수업실시 ●등록: 수시접수(725-7527~9) ●장소: 불교교육연구원(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 (0357)541-4705 야간: (0351)847-2001

"부처님 도량서 뛰놀고 싶어요"

불교유치원 전국 2백50여곳…놀이방만이라도 있었으면
서울시, 시설비 2천5백만원·매달 운영비 1백만원 지원

얼마전 서울 불광사 불광유치원 이신숙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난처해 했다. 금년도 신학기 원생 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단하루만에 정원이 초과되자 미처 접수하지 못한 학부모들이 꼭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계는 학부모들이 불교유치원을 원하고 있으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불교계에는 전국적으로 1백 60여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불교유치원까지 합쳐도 2백50여개로 전국 유치원 8천여개에 비하면 3%에 불과하다.

특히 불교유치원은 지역별로 서울에 15개 정도여서 인구비율로 볼때 서울의 불교유치원 부족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 때문에 불자자녀를 둔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자녀들을 타종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때때로 가정의 화목을 깨는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전에 살고있는 보현심보살은 국교 3년생인 딸이 식사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때 마다 곤욕을 치루곤 한다. 예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배운것을 여러번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불교계는 유치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새로 창건되는 사찰마다 유치원을 함께 건립하는등 뒤늦게 어린이 포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통도사 서울포교당은 신도시에 창건되는 사찰마다 유치원을 설립, 12개의 유치원에서 원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원장 자용스님)은 지난 19일 유치원 건물을 중창하고 개원했다. 연화유치원은 이날 지상 2층 연건평 2백80여평의 첨단 전문 유치원건물을 신축, 불교 유아포교의 새장을 열었다.

이에앞서 천태종은 이달초 강원도 횡성 광제사와 충북 단양 광법사에 유치원을 새로 개원했으며 대구 대성사는 지난달 유치원을 증축하는등 어린이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유치원뿐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에도 관심을 갖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주 원효유치원 지도법사 해월스님은 "사찰마다 유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시설설비등 어려움이 많다"며 "비교적 운영이 쉬운 탁아방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낮 시간동안 어린이를 돌볼수 있는 보육시설 1천1백여곳을 97년까지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고 사립 탁아방의 경우 이달말까지 종교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각 구청별로 설치신청을 받아 2천5백만원의 시설비와 매달 1백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신숙 불광유치원원장은 "교육 백년대계와 포교를 위해서 사찰마다 유치원과 어린이 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사찰마다 어린이방등 유아보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계가 운영하는 햇님놀이방.

자비·사랑 함량 미달 종교가 제역할 해야

교수아들의 살인을 보고…교계의 반응

●… 문희웅〈명성여고 교장〉 재산상속을 노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교수의 사건은 같은 교육자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사고와 부재된 효의식의 광배가 빚어낸 일로 문제아 뒤에는 문제가정과 사회가 있다는 말을 또 한번 실감케 하는 계기됐다.

●… 서건남(57, 부산불교거사림회 회장) 듣기도 말하기에도 끔찍한 사건이다. 인간으로서 그럴수 있다는 것에 대해 회의마저 느껴진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재산상속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부모와 자식간에 종교가 서로 다른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근본적인 도덕이념이 무너져 내린 사회의 한 단면이기에 더욱 충격이 크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처님법을 널리 홍포해 윤리가 바로 선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문영호〈64, 한국운전불자 연합회 회장〉 패륜교수의 부친살해사건은 충격의 도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하는 사건이다.

이토록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날로 혼탁해가는 정신문화를 정화·선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토록 노력해야 한다.

●… 김호운〈소설가〉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러한 패륜범죄는 사회전반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 버릇없이 귀엽게만 키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인을 양산하는 것이 오늘날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와 각 가정은 인격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가정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김동순〈동북 신경정신과 원장〉 가족내에서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병적인 사건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에게서만 모든 일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될 것이다. 살해동기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못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나 짐작된다.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어느시점에 이르러 적개심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은연중 자식에게 강요를 일삼는 부모 또는 기성세대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 조성무〈48, 회사원〉 이번 존속살해 사건은 지난날 한국부모가 제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결과이다.

아버지는 가정윤리보다 돈에 치우쳐 부권부재가 되었고 어머니는 한풀이식의 '큰 인물'되기만 강조하는 모성애 결핍속에 존속살인은 일어났다고 본다.

늦었지만 그동안의 가정교육을 반성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연대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하겠다.

●… 박성덕행〈주부〉 아들에 의해서 인생의 종말을 비참하게 마치게된 그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떠나 불자로서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종교적인 갈등이 가족간에 불화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일련의 이 사건으로 종교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반성하는 바이다.

29일 입제·내달 7일 자주화 대토론회등

3·29법난 1주 행사 다채

승가대학 학인회 세부계획 수립

3·29법난 및 4·10 전국승려대회 1주년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국 승가대학 학인연합회(의장 지명스님)는 지난 20일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추진위원회 전체모임을 갖고, 행사 내용 및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오는29일 오후2시 조계사 불교회관에서의 입제선언을 시작으로 봉행되는 이번 대법회는 4월7일 오후2시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종단개혁 및 불교자주화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로 이어진다.

또한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3·29, 4·10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실은 사진·신문만평의 전시와 비디오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어 4월10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대법회를 봉행, 행사일정을 마무리 한다.

청화스님을 상임대표로, 지홍스님을 행사추진위원으로 하는 이번 대법회에서는 종단개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본 불교발전 방안제의를 위해 지난21일부터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다.

불교선농회 출범

22일 환경운동기치로

한국불교선농회(회장 장혜명)는 지난 2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스님과 신도, 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선농회는 대전 중앙본부를 비롯, 서울 부산 대구등 13개 지역본부에 1천3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농촌 환경 오염 개선과 우리 농산물 애용, 경로효친사상 회복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선농회는 농촌토양 살리기, 지역 특산물 및 무공해 식품 직거래 연결, 양축농가 미생물 균제 보급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80년간 망실 토지 되찾아

호압사, 정부문서자료 토대로

80여년간 미등기 상태로 망실됐던 사찰 토지가 한 스님의 노력끝에 되찾아졌음이 최근 밝혀졌다.

지난해 7월 구로구 시흥동 소재 삼성산 호압사 주지로 부임한 원욱스님은 불사계획중 사찰관리토지 상당부분이 미등기로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 작년 9월 내무부장관앞으로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절차에 따른 대장정리 신청방법'질의서를 보냈다.

내무부로부터 '전통사찰등록증'소유자가 주소등록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원욱스님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2일 1천5백여평의 망실토지 재산등기소유를 국가로부터 최종 인정받았다.

원욱스님은 "정부 문서 기록보관소에서 확인된 나머지 9천여평의 사찰토지도 빠른시일내에 되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찰토지를 되찾게 된 호압사는 오는 4월14일 10여년동안 미뤄왔던 약사전 천불 점안식과 대웅전 현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대구 사원주지연 발족

마하야나·동화사말사 80개사암

대구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소속 40여개 사암과 동화사 본말사 40여개 사암등이 연합한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가 창립된다.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는 28일 오후 3시와 6시에 프린스호텔 별관 5층 그로리홀과 2층 대연회실에서 각각 창립총회와 창립법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이로써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에는 대구를 비롯 칠곡군,달성군의 80여개사암외에도 더욱 많은 사암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 포교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우·수륙대제 봉행

29일 고성사암연합회

고성사암연합회(회장 지성스님)는 29일 오전 10시 옥천사 대광장에서 '우순풍조(기우제)·국태민안 기원 및 수륙대제'를 봉행한다.

이번 기우재에서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발원과 함께 기우제에 큰 영험이 있다고 알려진 옥천사괘불이 봉안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창립총회

대불련 총동문회 내달 16일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 쌍용증권사장)는 오는 4월16일 오후1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대학의 불교학생회 동문 및 각 불교학생회 전·현 지도교수와 법사등이 참석, 이사장 및 18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아울러 사업계획과 예산도 확정될 계획이다.

신라문화원 개원두돌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개원2주년기념 한마당 큰잔치가 25일부터 31일까지의 일정으로 펼쳐지고 있다.

선서화전(25~31일) 초청대법회(25일) 초청강연(27~31일) 사진동우회원전(25~29일) 등으로 진행되는 큰잔치는 경주지역 문화포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본사서 말사주지교육

조계종 교무국장 회의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가 지난 22일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조계종교육원장 원산스님과 부장 향적스님등 교육원 임원진과 전국 20본사 교무국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 교구 말사주지 종무연수회를 본사가 주최하며 교재·교육의 기본틀 날짜 등을 교육원이 주관해 열기로 하는 한편 교육내용은 교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사미(니)계 수계자부터는 대가사를 수하지 못하고 만의를 수하도록 하고 종단차원에서 가사불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승가대학 개편에 관해 교무국장스님들은 교육원의 개편논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신도단체협 사업안 확정

종단협산하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종단협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9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태고종 관음종등 19개 종단 신도회 회장들은 이날 연합회를 협의회로 바꾸고 95년 사업으로 4월1일부터 6개월간 시, 도지부를 결성키로 했다.

전주 운불련 창립

서울 대전 대구 등에 이어 열한번째로 전주지역에도 개인택시운전기사 불자회가 창립됐다.

전주 운불회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전북불교회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정법수행 및 포교의 서곡을 울렸다.

청교련 독서실 개관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관장 복혜인)을 23일 개관했다.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은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2백50평 규모로 1층은 노인정, 2층 3층은 1백20석의 열람실로 꾸며졌다.

비구니중진연수 운문사서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연수회가 동학사에서 운문사로 변경, 내달 17~19일 열린다.

비구니수행관 준공

중앙승가대학 비구니수행관(관장 본각스님) 준공기념법회가 지난 22일 월주스님, 원산스님, 승찬스님, 국회의원 이철씨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봉행됐다.

불광사 군불자 위문

불광사 거사림회(회장 최병훈)는 지난 12일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군 소재 호국 무선사에서 불자장병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포살참회 보살계 봉행

김해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한과)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김해 신어산 동림사에서 일타·고산·화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포살참회보살계'를 봉행했다.

천불사 관음석굴 낙성

양산 천불사(주지 도봉스님)는 지난 19일 스님, 신도, 지역단체장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불사 관음석굴 낙성식을 봉행했다.

도명스님 입적

전 월정사주지 도명스님이 지난 10일 예천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52세, 법랍 31세.

도명스님은 62년 고송스님을 은사로 득도한이래, 72년 보현사 주지를 거쳐 5·6·8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냈고, 사회부장, 규정부장등을 역임했다.

3.29 법난, 4.10 승려대회 1주년 기념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증 명 월하, 서옹

고 문 서운, 관응, 월산, 문성, 혜암, 승찬, 원담, 운경, 고송, 비룡, 웅담, 도천, 도견, 지종, 석주, 청하, 일타, 도원, 성수, 벽암, 수산, 청화, 월인, 송담, 화산, 진제, 지유 (무순)

지도위원 탄성, 녹원, 월주, 고산, 능가, 광덕, 지관, 이두, 지유, 벽파, 도문, 정일, 혜정, 법정, 보성, 대정, 법홍, 화엄, 우룡, 월운, 도원, 혜산, 무문, 원명, 천운, 근일, 무진장, 송산, 보광, 무비, 종진, 원산, 정락, 설정, 정대, 월탄, 설조, 태웅, 오현, 현호, 홍교, 지형, 지하, 월서, 법조, 현성, 법혜, 혜남, 지선, 정현, 지홍, 현해, 월성, 철웅, 법장, 무공, 정관, 지은, 도영, 종열, 현고, 현근, 재곤, 지원, 정명, 무여, 고우, 덕민, 수진, 범하, 지명, 원우, 시현, 설송, 혜창, 중래, 평상 (무순)

상임대표 청화

공동대표 도법, 혜총, 수완, 성웅, 정도, 범천, 각원, 정혜도량, 전불련, 재불련, 우리는 선우

행사 추진위원장 지홍

추진위원 종림, 광복, 세영, 무산, 원행, 부동, 각현, 무상, 덕상, 장곡, 지운, 인행, 법등, 정우, 선봉, 성덕, 현소, 향공, 성타, 진현, 무착, 선용, 원명, 영담, 영환, 석호, 정우, 영배, 혜광, 원행, 성오, 지운, 종원, 진만, 지원, 영조, 보선, 혜관, 종하, 진아, 대원, 동명, 일민, 화범, 성우, 명진, 현봉, 종광, 정인, 법성, 지만, 여연, 효림, 정휴, 장운, 성문, 현진, 진관, 지환, 일수, 성로, 정호, 성우, 만성, 법진, 종삼, 덕신, 법광, 정만, 정념, 홍관, 향적, 덕운, 정문, 원해, 성수, 화암, 종석, 종운, 태원, 금정, 선진, 재원, 범민, 보각, 성도, 무상, 진욱, 성본, 법산, 도업, 대각, 현강, 혜권, 상묵, 지운, 대진, 상우, 각문, 동욱, 종림, 성연, 도현, 동광, 현엽, 원타, 도완, 현승, 수경, 동성, 도각, 장적, 주영, 법안, 오성, 토진, 혜담, 설봉, 해관, 탄공, 철오, 지암, 도현, 본원, 법일, 진우, 현기, 일문, 자성, 원명, 현담, 무여, 선광, 선법, 정산, 명성, 묘엄, 지광, 지형, 일연, 계수, 성총, 성정, 묘순, 대우, 일법, 수현, 재운, 육문, 법용, 지호, 진성, 본각, 해주, 흥륜, 혜조, 재범, 원담, 유곡, 홍승, 회문, 정야, 종호, 범운, 종선, 용담, 현공, 법상, 일감, 도은, 진목, 우석, 금인, 현민, 정담, 도륜, 대준, 묘준, 혜타, 천지, 월, 길상 (무순) 한상범, 이문옥, 박광서, 안동일, 이순규, 김재일, 남지심, 곽상인

사무처장 각밀

실무 진행위원
- ●총무-지명, 혜경, 각원
- ●기획-법안, 송묵, 정암
- ●홍보-현법, 오성, 금강
- ●섭외-각신, 진웅, 이지
- ●의전-하림, 덕문, 원융

행 사 일 정

■ 3.29 입제선언,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자료전시회(종단개혁 사진 만평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 비디오상영전
일시 :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및 조계사 경내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
일시 : 4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총무원 청사 1층

■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일시 : 4월 10일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참가단체 : 선우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동문회, 동국대석림동문회,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동문동림회, 중앙승가대학학생회, 동국대석림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재가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우리는 선우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



定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일체로부터 탈출 자유찾는 길 추구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하고 싶은 것」들로 가득 찾어있다.

그것은 어느 한 순간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냈거나 저질러 놓은 과거와 「하고 싶은 것」이 해내야 할 미래 사이에서 조금도 편치 않은 우리의 현재를 심가쁘게 몰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그토록 하염없이 얻고자 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에 그 모든것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꼭 갖고 싶었거나 기필코 이루어내려고 했던 일, 그리고 진장으로 사랑했던 대상등 자기와 관련된 일체로부터의 탈출. 어쩌면 이것은 욕망의 극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욕망이란 것은 성취라는 갈을 보아야만 그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커져간 욕망이 마침내 얻고자 한 것은 결국 그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었나 싶다. 속박같은 업어진 자유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자 업종의 「자유」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않을만큼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가 최후로 가질 수 있는 더 하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도 자유가 아닐까.

그가 어느날 깊고 고요한 정적속에 빠져 끝을 알 수 없는 아득한 권안함으로 감시 시간을 잊게된다면, 그의 마음은 마치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영원속으로 까마득히 사라져, 욕망이고 탈출이고 할 것없이 그대로 정에 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하여 마치 비밀의 문을 연본 것처럼 그새를 잊지못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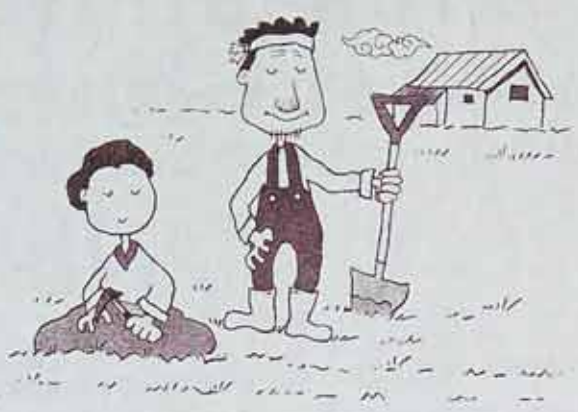
부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결국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욕망으로부터 뛰어나와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며, 그리로 향하는 비밀의 문을 열보고난 뒤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된 사람이며, 마침내는 그 자유를 얻기위한 새로운 속박과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고 시공이 다한 마음위에 끊임없이 자유로의 솔구를 그려내는 사람들이다.

〈황남채 · 판화가〉

뒷산 울창한 숲에서 ②

주부신행담



어느날 아끼던 제자가 2권의 책을 가져왔다 '한사람은 그 법문을 이해하고 감동하는데 나는 왜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남편은 교육계를 정년 퇴직하고 낙향하여 천안(전에는 천원이라 불렀다)에 있는 흑성산 기슭의 산밑 한적한 곳에 외딴집을 지었다. 이 집이 완공되던 해 남편의 정신적 지주였던 일본에 사는 하천(河田)선생님이 가족과 제자들 15명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이곳 산골집에 오셨다.

손수 '천원생활사(天原生活舍)'라고 현판을 써서 걸어주시고 법문까지 해주셨다. 참으로 뜻깊은 '개관식'이었다.

아이들이 모두 좋은 기업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국내, 국외로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남편과 나는 자연과 함께 심도있는 구도생활에 빠져들고 있었다. 어느덧 남편과 나는 하나가 되어 불법의 수행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꿈만 같았지만 너드 모르게 불법에 빠져든 생활은 오히려 행복감마저 들게 할 정도로 만족감을 주곤 했다.

남편은 이곳 산골 오막살이를 자연과 더불어 구도생활의 수련도장으로 삼자고 했다. 그래서 인연따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사람이라도 좋으니 '참사람'으로 이끌어 주는데 함께 함을 합의보자고 했다.

우리가 맨처음 시작한 일은 우선 흙을 살리고 무공해 채소를 가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우리의 뜻은 조금씩 알려져 봄·여름 방학동안 일본과 서울을 비롯한 각지방에서 찾아온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을 위해 20-30명씩 조를 나누어 3박4일 일정으로 연수회를 열었다. 아침 일찍부터 노동으로 시작해서 밤늦도록 진리에 대해 토론하며 알찬 수련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학생들도 모두 진지하고 열심이었다.

이외에도 남편은 희보쓰는일, 자기가 이끌어오던 '광명생활회'라는 수도장에 나가는 일 등 연수생과 더불어 모든 일 하나하나에 혼신을 쏟아부었다. 마치 도인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암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크게 동요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생활을 계속했다. 아니 오히려 그 흔한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무한한 생명력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었다. 불안하고 초조한 생활이 계속됐다. 커다란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가장 아끼던 제자가 대행스님의 구도기 '道'와 '無'라는 책을 가지고 왔다. 암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워오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가장 절실한 시기였기에 남편과 나는 온몸으로 읽고 또 읽었다.

물론 나와 남편이 그 책을 대하는 입장은 달랐다.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남편이 찾았던 것은 암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위안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어떤 법이었다.

그렇게 찾던 부처님은 바로 그 안에 있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나와 남편은 한바음선원을 찾아가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다. 그런 후 우린 스님의 법문 테이프는 있는대로 구해와 경청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 알과였다.

남편은 스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느낀듯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바로 그것이야…" 하면서 밝고 환한 웃음을 지어보이곤 했다.

그런데 처음 법문때 느낀 것과는 달리 나는 오히려 점점 답답해지기만 했다. 초발심자경문에서부터 육조단경에 이르기까지 기초를 닦은 나였지만 스님의 설법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내용들뿐이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함께 오랜 세월동안 신심을 쌓아왔으면서도 '한사람은 그 법문을 이해하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데 나는 왜 도무지 마음에 와 닿지않는 것일까' 하는 문제였다.

한동안을 궁리했으나 나로서는 도저히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고민끝에 나는 남편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남편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한참을 말씀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부처와 당신을 둘로 보고 수행을 했고 또한 경을 위주로 지식만 넓혀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되지 않은 때문이야."

박문수철 (천안 흑성산 천원생활사)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⑫

The wife, ministered to by her husband, as the western quarter, loves him in these five ways. by doing her duty well, by hospitality to attendants,etc., by her fidelity, by looking after his earnings, and by skill and industry in all her business dealings.

남편으로부터 서쪽방향으로 봉사받은 아내는 이런 다섯가지 방법으로 그를 사랑한다. 아내의 의무를 잘 함으로써, 시종들에게 친절함으로써, 정조를 지킴으로써, 그의 수입을 잘 관리함으로써, 능숙하고 부지런하게 자기의 모든 일을 함으로써.

In five ways a member of a family should minister to his friends and companions as the northern quarter, by generosity, by courtesy, by benevolence, by equality(treating them as he treats himself) and by being true to his word.

다섯가지 방법으로 재가자는 친구와 동료를 북방으로 대해야 한다. 관대함으로써, 정중함으로써, 자비로움으로써, 자기자신에게 하듯 똑같이 대함으로써, 말한 바를 지킴으로써.

Thus ministered to as the northern quarter, his friends and companions love him in these five ways. They protect him when he is in need of protection. They look after his property when he is unable to. They become a refuge in danger. They do not forsake him in his troubles. and they respect even others related to him.

이렇게 북방으로 대접받은 그의 친구와 동료들은 다섯가지 방법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들은 보호가 필요할때 그를 보호한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들은 그가 곤경에 처할때 버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까지 존경한다.

'forsake' 버리다. 〈박미영 기자〉

Ch 32 불교TV '95 불자주식공모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불국토, 우리 불자님들이 만드셔야지요."

한강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 시바세계는 물론 과안의 언덕까지라도 스며들게 하겠다는 듯이 흐르고 있다. TV 부처님을 모시는 중창불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바로 한강이 굽어보이는 자리이다. 어찌 불연(佛緣)이 아닐 것인가. 불교TV 대표이사이신 대행스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써 중생구제를 위해 천백억의 응신(應身)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TV의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하루 8시간씩 방송이 되고 있으므로 어느곳에서든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으니까요." 최근 불교TV의 중창불사를 위해 산(山)을 떠나 저잣거리로 나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스님의 진면(眞面)이 아닐까 싶다.

"아침 8시면 꼭 사무실에 나옵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기 위해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심 원력으로 기도하며 발로 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로스님들과 수좌들의 사원을 관리는 심부름꾼으로서 뛰고 있을 뿐입니다. 저 회사 사무실마다, 저 집집마다 부처님의 진리가 가득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이제야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님이 믿고 뛰는 것은 부처님과 2천만 불자들이 바람벽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다. 포교를 위해 불교TV 중창불사를 하는데 불제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에 2차 불자주식공모의 목표도 무난히 달성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음이다.

"산골짜기에 계시던 부처님이 안방으로 나투시고, 뵈고 싶었던 큰스님의 법문이 폭포소리처럼 크게 울려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희심을 일으키지 않을 불제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1차 불자주식을 공모하여 80억 가까운 모금은 물론이고, 각 종단의 원장스님과 대덕스님들의 큰 관심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도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지옥에까지도 불교TV를 가설하시겠다고 웃으시는, 불자주식에 참여 하지 못한 불제자들은 어느 날인가 부처님께 크게 면목 없을 거라며 엄포를 놓으시는 대응 스님. 봄의 양광(陽光)을 눈부시게 반사하며 종교(宗敎)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한강-. 그것을 바라보는 스님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봄볕같은 덕화(德化)가 느껴진다.

대담 : 無染 정찬주(소설가)

'95불교TV불자주식 청약안내
■청 약 기 간 : 1995년 3월 30일~6월 29일
■청약지로용지교부처 : 전국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부산지사
■청 약 한 도 : 1인 20주(10만원) 이상 4만주(2억원) 이하
■청 약 요 령 : 교부받은 지로용지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가불납인후 은행 및 농·수·축협 지로창구에 청약기간안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전 화 : 불교TV본사 : (02)3270-3476~9
부 산 지 사 : (051)645-5114

btn 불교TV 32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치열한 구도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